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인간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4월 15일 (토) 제 1630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성경은 희망과 도덕의 근거”

바나리서치, “미국인과 성경” 연례 설문조사 결과 발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더욱 불거진 진보와 보수 양극단으로 첨예하게 분열된 미국사회에서, 불확실과 도덕적 균열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성경에서 희망의 근거와 도덕

적 근거를 찾고 있다고, 바나리서치는 '미국성서공회'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미국인과 성경” 설문 조사 결과를 밝혔다(State of the Bible 2017: Top Findings).

성경 우선주의는 안정적

이번 결과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성경에 대한 인정이나 의존은 2013년 이후로 안정 국면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성경에 대한 회의적인 미국인들은 점점 줄어 갔지만 미국인들 중 58%가 성경 우선주의, 그리고 23%는 성경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살아갈 근거를 찾고 있다.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주목할 만한 성경 우선주의의 부침이 있었지만, 이번 설문 결과는 이제는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평균 연령 증가

일반적으로, '성경 우선주의'일수록 나이가 많다. 다시 말해서, 5가지 유형(성경우선주의, 성경우호주의, 성경중립주의, 성경회의주의 그리고 성경적대주의) 입장에 있는 미국인들의 평균 연령이 증가했다. 성경회의주의는 43세, 성경중립주의는 45세, 성경우호주의는 47세 그리고 성경우선주의는 53세로 밝혀졌다.

여성들이 우선주의나 우호주의에 가깝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여성들이 교회에 남성들보다 많이 나가는 것처럼 여성이 성경을 많이 읽고 있다. 실제로, 성경우호주의는 여성 60% vs. 남성 40%, 성경우선주의는 53% vs. 47%이고, 그 반대로, 중립주의는 48% vs. 52%, 회의주의는 41% vs. 59%로 여성들이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성경책 선호, 그러나 다른 매체 사용 증가



미국사회가 분열의 모습을 보여도 미국인들은 성경에서 희망의 근거와 도덕적 근거를 찾고 있다.

미국인들의 성경을 접하는 방법들이 변화하고 있다. 물론 91%나 되는 성경 독자들이 여전히 인쇄 매체 즉 성경책을 읽고 있지만, 작년에만 92%의 미국인들이 다른 매체를 통해 성경을 읽고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첨단 기술과 접목된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 따라서 과반수 이상의 사용자들이 인터넷(55%)과 스마트폰(53%)을 통해 성경을 보고 있다. 그리고 43%는 자신들의 휴대폰에 성경 앱을 깔아서 보다 효과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1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가정, 성경 소유

거의 90%에 가까운 미국 가정들에서는 성경을 최소한 1권 이상을 가지고 있다(87%). 이러한 현상 역시 2011년 이후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심지어 성경에 적대적이거나(62%), 회의적인 가정(67%)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4면으로 계속>

[알림: 정기휴간에 따라 다음 주는 쉽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오래된 풍토와 정서적 토양을 잘 점검 집중적으로 개선시키는 노력에서 시작

처치리더스.컴, 교회개혁전문지원 오차드 그룹 대표 폴 윌리엄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특징 소개

당신의 교회는 정서적으로 건강한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신생 교회일수록 점검이 필요하다.

지난 65년간 교회 개혁에 힘써온 오차드 그룹(Orchard Group) 수십 년 동안 작고 힘든 교회들을 개혁했다.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오차드 그룹이 도운 개혁교회들은 꽤 빠르게 성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시도한 변화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가장 일반적인 그의 답변은 시간과 공을 들여 섬기다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였다(윌리엄스는 이 목회를 한지 30년이 됐기에 가능한 이야기 같다고 설명했다). 재미있게 풀어 대답한 그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고 말한 윌리엄스의 말을 들어본다.

“하나님 지식의 유일한 참된 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성화의 과정에 위치...성도에 종말론적 의미 가져

하지만 생각해보니 우리의 교회들이 전격적인 변화를 보이며 성장할 수 있었던 명확한 이유가 한 가지 있었다. 15년 동안 자질과 능력은 물론 지혜, 통찰력, 성숙함 면에서 확신이 가지 않는 교역자와는 함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이가 들수록 확실해지는 한 가지는 훌륭한 리더십을 위해서 높은 EQ(감성지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었고 나의 이 신념은 목회자를 청빙하고 교회를 꾸려갈 때 적용했다.

에드윈 프리드먼(Edwin H. Friedman)은 그의 저서인 “세대와 세대를 넘어: 교회와 회당의 가족 공동체 형성과정(Generation to Generation: Family Process in Church and Synagogue)”이라는 책에서 가족 관계의 역학관계와 비교해 교회 공동체의 역학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에서 일하기 가장 어려운 곳 두 곳은 바로 가족 소유의 기

업과 교회라고 한다. 아마도 이 주장에 동의하는 독자들이 꽤 있을 것이다. 가족과 마찬가지로 교회 또한 구성원 간에 처리하고 잘 관리해야 할 예민하고 섬세한 감성선(정서와 분위기)이 있다.

저자에 따르면, 마치 비행이론처럼 각각의 교회는 그 모임이 시작된 시점에 발생돼 계속해서 근간처럼 깔려있는 공동체의 에너지 혹은 분위기가 있다. 따라서 이 분위기의 근원을 찾아서 비판적이고 생산적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가족역학의 관점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다음의 8가지 특징은 오래된 풍토와 정서적 토양을 잘 점검해 집중적으로 개선시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3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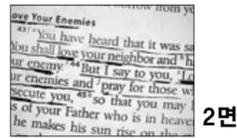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시문 최해근 목사
2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2면


종교개혁 500주년
조진모 목사
7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선교의 창
송종록 목사
13면

나성제일교회(1967-2017)

창립 50주년 기념 말씀 사경회 및 임직 감사예배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 2017년 4월 23일(주일) 오전 8시, 11시

말씀 사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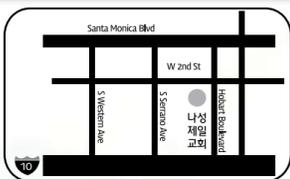
2017년 4월 21일(금) - 23일(주일)
금, 토(오후 7:30), 주일(오전 8시, 11시)

강사: 권연경 목사(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교수)
송병주 목사(LA선한청지기교회 담임)
이지훈 목사(산호세뉴비전교회 원로목사)

임직식

2017년 4월 23일(주일) 오후 4시

- 장로장립: 신피터
- 안수집사임직: 강태성, 최현수
- 명예안수집사임직: 김부기, 박한문, 이현근
- 권사취임: 엄정희, 이재경, 장경애, 장풍옥
- 명예권사취임: 박윤경, 장희자



나성제일교회

213 S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Tel. 213. 338. 7101 담임목사 김문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BBC, 꼬리 물고 이어지는 복수의 원인, 심리학적 실험결과 보도

복수의 이야기는 항상 통쾌하면서도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트로이의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렌과 사랑에 빠져 야반도주하자, 이에 격분한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가 모든 병력을 이끌고 트로이에 쳐들어와 전쟁이 났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은 끔찍한 결말이다.

복수는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아킬레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촌지간인 파트로클루스가 전사하자, 아킬레스는 파트로클루스를 죽인 이를 찾아 물불 안 가리고 복수에 나선다. 복수의 역사는 아마도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할 만큼 오래됐다. 주인공 오레스테스가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를 살해하는 이야

기를 다룬 아이스킬로스의 오레스테스 3부작을 비롯한 그리스 비극에서부터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이르기까지 복수는 수많은 문학 작품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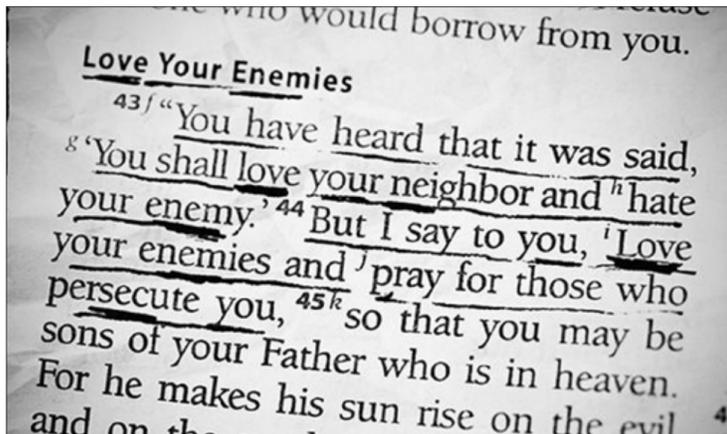
그러나 성경은 복수 이야기가 아닌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를 말한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 순환을 끝내고 복수의 정치학이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 용서의 역전을 말해준다.

BBC는 인류 역사와 함께 한 복수의 순환 고리가 단절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심리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보도했는데, 한마디로 복수의 민낯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준다(The Hidden Upsides of Revenge).

누구나 나를 못살게 굴거나 괴롭힌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앙갚음하는 상상을 한다. 복수심을 마음속에만 두지 않고 입 밖으로 꺼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노라고 저주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상상을 하거나 저주를 퍼붓는 순간 우리는 분명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하지만 그전에 우리는 왜 복수를 꿈꾸는가? 학자들은 복수의 원리를 조금씩 밝혀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복수의 장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복수심은 무척 강렬한 감정으로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은 어떤 행동이든 서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이애미 대학교의 심리학자 마이클 맥켈로프는 10년 넘게 복수와 용서의 감정을 연구해 왔다.

“복수심은 인간의 삶에서 무척 흔한 감정



복수는 감정통제경험과 관련, 폭력순환고리 연결 단초 쾌락 느끼기 위해 복수하지만 그 쾌락 감정은 순간적

중 하나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가 나고 지금 이 아픔과 상처를 갚아주겠다는 생각은 어느 사회에 속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전체 살인의 20%, 학교에서 일어나는 총기 사고의 60%가 복수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복수는 정치 현상을 이해하는 단서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두고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많은 언론은 “백인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복수”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급속한 세계화 흐름 속에 도태되고 버림받은 이들이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사람의 공격성에 관해서는 비교적 자세한 연구가 진행됐다. 술에 취하거나 모욕을 당하는 상황, 자기애가 강한 성격 등 공격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에 관한 연구도 많다. 반면 복수심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사실 폭력적인 행동을 원인으로 단정히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의 데이비드 체스터는 처음에는 사람의 공격성을 연구하다가 이내 폭력의 이면에 훨씬 복잡한 역할이 있음을 깨닫고 연구 주제를 바꿨다. 그는 어떤 것에 자극을 받아 폭력을 일으키기까지 그사이에 나타나는 감정을 일종의 “심리적 매개체”라고 부른다.

“사람이 어떤 식으로 모욕을 느끼고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까지 어떻게

감정이 변하고 행동이 나타나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는 앙갚음하겠다는 욕망이 핵심 기제라고 믿고 있다. “결국, 공격적인 행동의 원리를 이해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수심에 관해 연구하게 됐죠.”

체스터 교수는 먼저 복수심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했다. 켄터키 대학교의 네이션 드릴 교수와 함께 그는 사람들이 수모를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거부당하면 정서적으로 고통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거부당했다고 느낀 뒤에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뇌에서 고통과 관련된 영역이 가장 활성화됐다. 체스터는 “나를 위협하거나 해를 끼치려는 대상에 공격적으로 앙갚음하는 경향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채택한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놀랍게도 감정적인 고통이 쾌락이라는 감정과도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즉, 처음에 거부당하고 수모를 겪는 건 물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는 나를 힘들게 한 대상에 복수할 수 있다는 즐거운 상상으로 금세 대체된다. 심지어 복수하는 상상을 하면 뇌 안의 보상 회로로 알려진 중격의지핵이라는 곳이 활성화된다. 어떤 일에 자극을 받아 화를 내는 사람들이 공격적인 모습을 띠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했을 때 항락적인 보상을 받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복수란 실제로 달콤한 행위인 셈이다.

공격성과 쾌락 사이에 모종의 연관이 있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3편으로 계속)



시론

발이 보이는가 사람이 보이는가



최해근 목사 (홍고베리교회)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가 있습니다. 한 국가가 완전하게 청렴하면 100으로 하고 완전히 부패하면 0으로 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대체로 2015년 통계를 보면 미국은 100점 만점에 76점으로 청렴도 순위 16위에 해당되었으며 대한민국은 56점으로 청렴도 순위 38위에 올랐습니다. 기업경영자들로 하여금 사업을 하면서 한 국가의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했다고 느끼는지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부패인식지수가 최하위에 해당하는 국가일수록 공무원들이 뇌물을 요구하고 공공업무의 진행속도가 뇌물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하위 국가들로서는 북한,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수단, 이라크와 하이티 등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와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간단한 행정적인 서류 하나라도 외국인이 신청하게 되면 복잡하고 불공정한 과정을 겪거나 심중팔구 뇌물을 요구받게 됩니다. 신앙인의 양심으로 인해 한두 번 거절하지만 결국 사역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 사회의 부패 속으로 함께 묻어가면서 적당하게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아픔을 만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영적인 필요들과 깨어진 삶의 모습으로 인해 사역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가슴으로 울지만 공공 사무실의 분위기는 사역자들의 마음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어린 아이들을 보며 모든 것을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선교사님들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현장에서는 부정 한 뇌물이나 가짜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그런 현실을 감당하다 못한 어떤 사역자는 눈물을 머금고 사역을 중단하고 후방으로 철수해야 하는 쓰라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실상을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분명히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지만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됩니다. 알고 보니 밭주인을 미워하는 원수가 밭중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린 것입니다. 일꾼들은 그렇게 생겨난 가라지들을 단 번에 제거할 것을 권하지만 주인은 가라지를 제거하다 곡식까지 다칠까봐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는 가라지와 곡식이 섞여 있다거나 교회에도 가라지와 곡식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온 합니다. 이런 내용도 보여주지만 좀 더 촘촘히 본문의 말씀을 읽다보면 본문이 가르치는 것이 그 이상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천국은 마치 가라지와 곡식이 섞여 있는 ‘밭’과 같다고 하시지 않고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들고 계십니다. 왜 천국을 ‘사람’과 같다고 하셨을까? 밭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라면 ‘마음 혹은 감정’이 될 것입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섞여 있는 밭을 보면서 가라지를 뽑아 버리라고 제안하는 종들과 그렇게 하면 곡식을 다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주인과의 차이는 바로 ‘마음’입니다. 한 포기, 한 알의 곡식이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주인의 깊은 연민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교회를 보면서 ‘가라지와 곡식이 섞여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말은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라지와 곡식이 섞여 있는 곳이 세상이며 교회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라지와 곡식이 섞여 있는 그런 세상과 교회를 보는 주인의 마음’이 바로 천국의 마음, 즉 천국을 소유한 자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분명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아픔이 저러 있습니다. 가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생명을 잃고 있는 곡식들의 희생을 보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에는 언제나 눈물과 아픔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천국백성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눈과 마음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눈물과 아픔이 서려 있는지요? 부패한 국가에서 진리를 나누기 위해 가슴에 품고 있는 충성스런 전도자들의 눈물과 안타까움! 그 눈물과 아픔이 없이 세상이라는 밭을 볼 수 있고 그 밭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론가일 수는 있지만 주님의 제자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눈과 마음에는 무엇이 서려 있는지요...

thech. Choi82@yahoo.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 유원정

<p>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 (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p>	<p>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kpress@gmail.com</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Global Leadership Korea Forum

통일한국 리더십 포럼

주제: 통일한국 디자인과 리더십
Unification Korea Design and Leadership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Sejong Center, Sejong Hall
일시: 2017년 4월 25일 (화) 9:30 am- 4:30 pm

정근모박사 Dr. Kun Mo Chung
전, 국제투자개발기구 IAEA 회장
과기부장관, 호서대, 영지대총장
한전상업고문, Midwest 리더십박사
GLI 국제사업고문

Mrs. Deborah Fikes
미 국무장, 유엔 국제문제 위원,
행암리 국무장관자문위원
영국 웨스트민스터 법학 대학원선사
조지 워. 부시 행정부 아프리카 수단
영회협정 미국대표, 남북문제 전문가,
Midwest 리더십박사 졸업예정자
GLI 글로벌 여성 리더십포럼 대표.

Dr. James Song 총장
Midwest University 설립자, 총장
GLI 글로벌 리더십 포럼, 국제대표
국제교육협력기구 IEC, 이사장
국제복음주의협회, 총재

Global Leadership Institute Korea Center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한국 센터

후원: 통일한국 세움재단, Midwest University
국제 미래 지도자 사관학교, IEC 국제교육협력기구
Global Gateway University 글로벌 여성 리더십 포럼

참가자 자격: 통일한국 디자인과 리더십에 관심 있는 분
글로벌 리더십에 관심을 갖으신분
통일한국 리더십 포럼을 위한 도네이션을 하실분
온라인 (국민은행 525201-01-039497 송재명)

신청방법-이메일, 전화로 참가 신청 가능, 등록비 5만원
할인된 주차권 구입가능. 시작 20분전에 입장요망
e.mail: seoul@midwest.edu, 02-3672-4514

참가자 - email, 전화로 미리 참가신청하는 분에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GLI 수료증 수여
(2017년 4월 15일까지 등록자에 한함)

MBA 리더십전공, 리더십박사 학위 과정에 관심있는
분의 참석을 환영 합니다.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Sejong Center, Sejong Hall

GLI Korea Center; 서울시 종로구 5가 한국 기독교 회관 810호
Seoul@midwest.edu. 02-3672-4516
Midwest University ;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midwest.edu (636) 327-4645

오래된 풍토와 정서적 토양을 잘 점검 집중적으로 개선시키는 노력에서 시작

(1면에서 계속)

건강한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이 과정이 목회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다(8 Signs of an Emotionally Healthy Church).

1. 분리와 연합이 균형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라면 “우리는 남침례교단에 소속돼 있지만, 독립적인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롭게 개척된 교회들은 이 균형을 갖기가 더 힘들다. 하지만 건강하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라면 리더가 반드시 보여야 할 균형 잡힌 태도다.

2. 전 세대를 수용하는 교회

5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미국 교회는 다양한 세대들이 어울려 있었다. 조부모가 손녀 손자들의 손을 잡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흔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형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더 이상 찾기 힘들어졌다. 예나하면 대부분의 대형교회는 특정 세대에 집중된 목회와 사역을 펼치고 있고 대형교회의 1세대는 베이비 붐 세대들로 구성되어 대개 젊은 층과 상당한 간극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신생 교회들은 밀레니얼 세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초대형 교회와 개척교회를 찾기가 힘들어졌다. 이 특징은 가까운 미래에도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지만 모든 세대를 수용하고 있는 교회가 많아져야 한다.

3. 평신도 리더와 목회자가 함께 섬기는 교회

(2면에서 계속)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공격적으로 행동할 때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복수심이 특유한 방식의 쾌락을 가져온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건 최근의 일이다. 이 현상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체스터와 드월 교수는 여러 가지 실험을 했고, 그 결과를 지난달 학술지 “성경과 사회심리”에 게재했다. 실험 참가자들 가운데 일부는 공을 주고받는 컴퓨터 게임에서 고의로 배제되고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느낌을 받은 참가자들에게 가상의 밀짚 인형에 원하면 집이나 바늘을 찔 수 있게 했다. 컴퓨터 게임에서 배제된다고 느낀 참가자들이 인형에 훨씬 많은 침을 찔렀다. 처음에는 온라인상에서 실험을 했고, 사람들을 실험실로 불러 모아서도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실에서는 가상의 밀짚 인형에 침을 꽂는 대신 참가자들은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상대방에게 내지르는 방식으로 일종의 복수를 할 수 있게 했다. (상대방은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였지만, 참가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 이번에도 게임에서 배제됐다고 느낀 참가자들이 상대방에게 듣기 싫은 소음을 더 오래 들려주는 것으로 복수했다. 마지막으로 복수심이라는 감정의 기저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고자 체스터와 드월은 참가자들에게 감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약을 한 알씩 먹였다. (사실 이 약은 그냥 비타

민 보조제로 위약 효과/placebo effect를 내고자 한 실험의 일부였다) 위약 효과는 상당히 강했다. 약을 먹지 않은 참가자들은 다른 실험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려 들었지만, 약을 먹은 참가자들은 복수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해 내린 결론은 놀랍다. 즉, 복수라는 행위나 복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쾌락을 느낄 뿐 아니라 사람들이 복수에 나서는 이유가 바로 정확히 그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체스터는 결국 복수란 감정을 통제하는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이는 실제 실험을 통해 증명됐는데, 무언가 거부당해 상처받은 실험 참가자에게 복수할 기회가 주어지면 이들은 감정 테스트에서 무언가에 거부당한 적 없는 사람들과 비슷한 점수를 기록했다.

4. 은혜 중심적인 교회

이 특징은 개인의 신앙적 회심에 앞서 공동체에 먼저 편입되는 추세가 높아진 오늘날의 경우 더 중요하다.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존중과 지지가 있게 되는데, 회중은 교회 전체가 받는 내외부의 영향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5. 타협과 차선책에 안주하지 않는 교회

대화를 위해 제3의 길, 혹은 다른 타협안이 항상 나올 필요는 없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차선책이 평신도 리더와 목회자들 사이에서 최소화될 수 있다면 그들의 협력은 교회 전체에게 전달될 것이다. 물론 결정과정에는 논의의 주체자들이 많을수록 타협과 차선책에 안주하는 것이 편안하게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편리를 위해 차선책을 선택하기보다는 더 치밀하게 고민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6. 성도의 아픔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교회

신앙인이라면 신앙생활에도 성장을 위한 단계와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어떤 성도에게는 원리와 원칙이 강조돼야 하고 어떤 이들은 일시적으로 신앙이 흔들리지만 스스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며 고뇌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원리와 원칙을 넘어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행동해야 할 때도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런 다양한 단계와 시기의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다양성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는 리더라면 엄격함과 혼란의 틈새 가운데 분별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7. 구성원을 믿고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교회

“물론 우리에게 문제가 많다. 하지만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도 꽤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있는 리더, 그리고 건강한 객관성으로 교회를 점검하는 리더는 반드시 필요하다.

8. 목발과 같은 역할이 아니라 진솔한 피드백을 통해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교회

교회의 오래된 풍토에 매몰된 교회에 비해 건강한 교회들의 마지막 특징은 진솔한 피드백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개인의 생각과 마음을 그것을 형성시킨 외부환경과 분리시킬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닌 사람이 더 많은 교회다. 높은 카리스마로 명성을 떨쳤던 목회자가 진솔한 피드백의 부재로 결국 몰락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모든 리더십은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개방성과 수용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능력은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반드시 갖춰야 하는 태도다.

뻔해 보이는 참담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지네딘 지단이 2006년 자신의 선수생활 마지막 월드컵 결승전을 그런 식으로 망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지단이 2006년 독일월드컵 결승전에서 마르코 마테라짜와 말다툼을 벌이다 분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박치기를 해버린 장면은 추구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는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정적 리스트를 만들어 싫어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망쳐놓으려 했던 것도 비슷한 사례로 기억될 만하다. 결국, 도를 넘은 정치공작과 권모술수를 일삼은 닉슨은 사실상 강제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정치 인생을 마무리했다.

BBC는 결론으로, 복수가 바로 폭력의 순환 고리를 연결해주는 단초라고 분명하게 경고한다. 누군가 당신을 괴롭히거나 모욕을 줬서 복수를 계획하게 되면 복수를 상상하는 그 순간은 달콤하지만, 그 쾌락이 오래 지속할 기대하지는 않아야 한다. 대신 그런 감정이 드는 대단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어쩌면 그 감정 덕분에 우리 선조들은 복수가 죄를 물고 이어지는 악순환의 탓에 빠지게 됐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할 가장 현명한 결론이 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롬12:19).



목회 제언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오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서 죽는 제자

우리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만 볼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막8:34).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증거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옆에 같이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 받은 은혜를 받은 것이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자유를 받은 것이다(롬6:17, 18).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나타나는 그 죄에서 자유 하야 하는 것이다. 자유 하는 것은 그 죄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그 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 죄가 나에게서 일하지 못하게 하야 하는 것이다. 그 죄가 나를 이용하여 죄를 품게 하고 죄를 나타나게 하는 죄의 일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나타날 때 그 죄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죄가 나타날 때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야 하는 것이다. 종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야 하는 것이다. 죄에 순종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를 다스리는 것을 통하여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죄가 나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죄가 나타날 때, 분노가 나타날 때, 욕심이 나타날 때, 그 죄가 내 안에서 주장하지 못하게 하야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내가 죽으려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못 박히신 골고다 까지 가서 그 곁에서 죽는 것이다. 주님을 따라 죽는 것이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올라가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라. 주님 곁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영광을 바라보라. 비참함이 아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옆에서 죽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나타나 는 법이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는데 각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가서 죽어야 할 십자가는 없다면 이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 시지 못하고서 계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전히 죄는 성도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게 되는 것이다. 죄는 성도를 통하여 자유롭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 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야 하고 그곳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내 십자가에서 주님을 따라 죽어야 하는 것이다. 그 죽음을 통하여 죄가 다스려 지고 그 죄가 내 안에서 물러가고 그 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자 하는 것을 차단하게 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다.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물리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많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고자 소원을 받은 자여! 주님의 제자들이여! 주님 십자가 곁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좁은 길 영광의 길을 사모하며 가야 할 것이다.

sangdkim@yahoo.com

담임목사 청빙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참되고 신실하며, 성경적 개혁 신앙을 갖춘 목사로, 영성, 인성 및 믿음의 본이 되어 젊은 세대 부흥과 세계선교 지향적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는 1977년에 창립되어 미국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으로 아나뎀 중심, 말씀 중심, 교외 중심으로 선교의 비전을 실현하는 공동체로써 온 영도기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한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지원자격

1.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 신학교 졸업한 자로서 담임목사, 선교사, 부목사 5년 이상 경험자
3.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 선호
4. 미국 내 목회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2. 목회철학과 비전
3. 자기소개서 (신앙고백, 목회경험, 가족소개, 사진)
4. 졸업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5. 최근 1년 내의 설교(동영상, C.D)
6. 목사 2명 이상 추천서

제출처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range County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oc1newpastor@gmail.com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반우편과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2. 제출된 소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서류제출마감

2017년 5월 17일 소인까지

OC1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oc1newpastor@gmail.com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한 글 :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 평 신 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의 황제들: 데키우스 황제

교회 주변의 길 이름은 로마의 영웅 및 장군들의 이름들로 명명했다. 예로 우리 교회 앞길은 160년경의 유명한 집정관 출신의 귀족가문의 이름이다. 산책을 하던 중 Via Decio라는 길을 보고 사진으로 찾아보니 기독교를 극렬하게 핍박한 황제의 이름이었다. 흥미가 일어나 데키오 황제에 대한 글을 쓰게 되었다.

로마는 다신교를 섬기는 국가이기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대체

적으로 관대한 편이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타 종교와는 다르게 절대 타협을 하지 않았기에 통치자들은 항상 걸림돌로 여겨왔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재난이 올 때나 국경수비가 위태로울 때, 그 원인을 기독교 탓으로 돌리곤 했다. 국민이 하나가 될 때 국력은 강성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때에 황제에 오른 사람이 데키우스(Decius Valerianus 249-251)다. 데키우스

는 아랍 출신의 필립 황제를 베로나 근처의 전투에서 물리치고 왕위에 올랐다. 그는 왕위에 앉게 되자 로마제국을 과거의 강력한 국가로 회복시켜보려는 야심을 가졌다.

그는 250년 1월에 작심하고 눈에 가지 같은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법령을 선포했다. 즉 로마제국의 모든 시민은 국가적으로 섬기는 신만을 경배하고 행정관이 보는 앞에서 그 신에게 신성한 제물을 드려야한다고 말이다. 이 포교령은 기독교인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이처럼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말살하려는 정책은 처음 실시된 사건이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이 정책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단번에 배교하게 만들었다.

칼타고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로마의 신을 섬기는 제단으로 나갔고 심문을 받기도 전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교도 신전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 늘어난 기독교인들로 넘쳐나서 관리는 다음에 오라고 돌

려보내야 할 정도였다.

다른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감독의 인도로 집단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합류하는 일도 있었다. 로마도 예외는 아니었다. 수많은 기독교도들이 로마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서머나의 감독 옥테몬(Euctemon)이 배교하는 놀라운 일도 있었다. 많은 성도들이 배교하는 현상을 보며 당시의 영적 지도자 키프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했다.

“오랜 기간 동안의 평화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의 기강을 타락시켰다. 개인들은 부를 누리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다가 사도 시대 성도들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렸고 자신들의 신앙행위가 어떠한지 하는지도 몰랐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행위도 없었고 신앙의 훈련도 없었다. 남자들은 흥취하게 수염을 길렀고 여자들은 표피적 아름다움을 위해 많은 거짓으로 꾸몄다. 눈 모양도 바꾸었고 머리색도 가짜로 만들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모범이 되어야 할 감독들이 그들의 경

건한 사역을 떨치고 세속적 직업에 종사했다. 그들은 직분을 헌신처럼 내던지고 양 무리들을 떠나 해외에 여행하면서 돈을 모으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어쩌면 이 시대의 현상과 비슷하지 않을 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 로마의 감독 화비안(Fabian)과 예루살렘의 감독 디오니우스(Dioninus)가 처형당했고 칼타고의 감독 키프리아누스(Cyprianus)는 겨우 피신했고 오리게네스(Origenes)는 이때의 고문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어야 했다. 이들에게야 말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린 자들이었다.

그런데 기독교를 철저히 말살시키려고 시도했던 데키우스 황제가 고조즉과 전쟁 중에 251년 6월에 전사하자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혹독했던 박해를 끝나게 만들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모범이 되어야 할 감독들이 그들의 경

배교했던 무리들은 낮을 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신앙의 배교자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변명하고 처세술에 능했다는 사실이다. 역사는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 왔다.

우리로 신사참배를 경험했다.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옥중에 갇혔던 사람들이 출옥하고 신사 참배한 일을 철저히 회개하자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항하고 거절했다. ‘당신들만 고생한 줄 아느냐? 우리도 남아서 교회를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말이다. 우리는 신사 참배에 동원되어 머리를 숙였으나 실제로는 마음속으로 주님께 기도했다고 항변했다. 우리들의 신앙 내용은 주님 앞에 가서야 명확하게 들어나게 될 것이다.

패일언하고 성도는 은혜로 받은 구원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한 최소한의 영적 응답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이지용 목사 (뉴욕세세마네 교회)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그의 자녀 된 우리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한 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든 그 어떤 것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가 되고 출고 배고프니까 그제서야 집 생각이 났고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품꾼의 하나라도 되더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눅15:17).

사람이 편안할 때는 예수 찾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거나 사업의 실패 혹은 직장을 잃어버리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성도 여러분 중에도 아무런 고난이 없고 편안했다면

를 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어려움 당한다고 슬프다고 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지나고 난 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절망의 끝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낙심

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고난 중에 있습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더 큰 고난을 당하기 전에 온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생들은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지도 돌아오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새찬송가 527장은 주께 돌아오라고 노래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고난 중에도 반드시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주님께 돌아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야고보서 5장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겹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

이다”(시119:67). 71절에는 “고난당 고난 중에 있습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더 큰 고난을 당하기 전에 온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생들은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지도 돌아오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체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할 그때 매를 들지 못하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이때 현명한 부모는 자식을 체적으로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고난을 통해 징계하십니다. 죄의 길을 막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대도 징계하지 않

폼 뒤에 축복이 있다네.”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면서 시작하는 요나는 요나의 구원과 니느웨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서 발원되었음을 상기한다면 하나님은 원래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깊은 잠에 빠진 세상을 향해 구원의 때를 외쳐야 할 선지자가 배 밑창에 들어가 코를 골고 자는 아이러니는 요나 시대에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선지자를 흔들어 깨우는 이방인의 이야기 역시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의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유혹도 받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는 등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 지혜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되었고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귀하게 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역사에 찬란한 빛을 남겼던 인물치고 고난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은 종살이와 감옥을 거쳐서 애굽의 강력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박해를 피해 방랑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성군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생활의 연단과 고난을 통과함으로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누에고치 속에서 나방이 나오기 위해 꼬박 한나절을 애씁니다. 그 힘든 과정을 치르고 나서야 화려한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도 안쓰러워서 누에고치에 구멍을 뚫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쉽게 나왔는데 그 나방은 날지 못하고 곧 죽어갑니다. 좁은 구멍을 빠져 나오려는 몸부림이 나비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힘든 고난이 날개 근육을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고난을 통해 당신을 깨끗하게 강하고 그릇으로 만들어 귀히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며,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깨닫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nygo4tgc@yahoo.com

고난이 네게 유익이라 (시편 119:67-72)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과 고통으로 짙게 차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는 병이 찾아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합니다.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에서 밀려납니다. 믿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다. 물질 시험을 당하고 인간관계로 아파합니다. 이민자로 살면서 신분의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며 불 안속 살기도 하며, 어떤 때는 너무 괴로워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 그때 그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고난은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기도 합니다.

신학자 C. 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시편 119:67-72)

이럴 때 성도들조차도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고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고난 속에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난이 네가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가?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영광을 받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시편 119:67-72)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동생과 함께 서울에 올라와 유학생으로 자취 생활을 할 때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한 살 적은 남동생이 말을 잘 듣지 않거나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곤 했어요. 그때는 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절이라 편지를 쓰곤 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힘들어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 곁에 살고 싶어요”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탕자를 보십시오. 돈 있고 친구 있고 먹을 것, 입을 것 있을 때는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거지

고난이 유익이라 (시편 119:67-72)

“성경은 희망과 도덕의 근거”

(1면에서 계속)

더욱 더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 우선주의나 우호주의적인 가정에서는 성경을 가족들 모두가 돌려보고 있다는 점이다(93%). 그러나 성경에 거리감을 들수록 즉 중립주의(86%), 밀레니엄(82%)일수록 그 비율은 낮아진다. 인종적인 측면에서는, 흑인들(95%)은 거의 1인당 성경이 하나

씩 있는 것처럼 성경 보유율이 백인(87%), 히스패닉(88%)보다 높았다.

회의주의자들 성경에 여전히 적대적

미국 성인 중 성경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비율은 19% 정도다. 이들은 성경을 사람이 쓴 책으로 이

야기들과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본다. 올해, 바나리서치는 후속적인 설문으로 이들에게 “성경에 적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회의주의자들 중 78%가 성경에 적대적인 견해와 함께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조절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다.

미국인 중 절반, 성경 읽고 듣고

그리고 기도한다

1년에 적어도 3-4번 정도 성경을 읽고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미국인은 50% 정도다. 2011년 이후로 이러한 추세는 안정적인데, 올해에는 반대로 성경과 담을 쌓은 미국인들 즉 1년에 한 번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사람들이 32%로 이 수치는 작년에 비해 5% 증가했다.

성경우선주의=신앙 여정의 중요한 부분

신앙 여정에서 성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다고 이해하는 사람들 중 56%는 더욱더 성경을 최우선시 하겠다고 말한다. 비록 작년 67%에 비해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2014년(45%), 2015년(58%)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심각하거나 어려운 삶의 순

간들을 지내온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이할 방향과 해답들을 찾았다고 말한다(39%). 작년(26%), 13%나 증가했다. 성경을 통해 동기부여를 받아 삶이 변화했다는 미국인은 30%로, 이 수치 역시 안정적이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모슬렘 대학교수, “이슬람 모독했다” 기독교 학생 정학시켜

2016년, 이슬람 테러리스트 Omar Mateen(오마르 마텐)이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Pulse 나이트 클럽에서 49명씩이나 참혹하게 살해한지 1년이 지난 지금, 플로리다주에 있는 롤린스 대학교 직원들은 아직까지도 급진주의 이슬람 법을 따르고 있는 교수와 학생들에게는 매우 관대하지만, 기독교 학생들이 여차구니없는 이유로 처벌 받는 것은 허락해주고 있기에, 지난 8년간 오바마 행정부의 친이슬람 정책이 얼마나 깊이 미국 대학교 안에까지 뿌리 박혀있는지 새삼 다시 느끼게 합니다.

이번에는 모슬렘 교수가 자신의 강의에 들어와 있던 기독교 학생에 대해 거짓 고발까지 한 일이 드러나 시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슬람 우월주의자로 알려진 모슬렘 교수에게 “무슬림 인문학” 수업시간에 기독교 학생이 회교도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슬람 정통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학생의 이름은 Marshall Polston으로서 플로리다주에 있는 Rollins College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학생은 “이슬람 인문학” 클래스에서 여자 모슬렘 교수인 Areeje Zufari(아레제 주파리)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해 왜곡된 거짓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 교수가 가르쳤던 내용의 사실과 진실성에 의문제기를 하며, 그가 알고 있는 성경적 관점을 교수에게 나누었습니다.

모슬렘 교수가 수업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사기극이었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수업 때 Msarshall Polston이 교수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한 후 쓴 주요 에세이가 모슬렘 교수에 의해 별다른 이유 없이 52% ‘F’ 학점을 받게 된 것입니다. Polston은 항상 ‘A’ 학점만 받았던 학생으로, 처음에는 자기가 받은 점수를 보고 너무 놀라고 기가 막혔지만 교수에게 자기 에세이가 왜 ‘F’를 받았고 어떻게 하면 학점을 올릴 수 있는지 정중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교수는 “F” 학점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주는 대신

Polston이 교수를 “불안”하게 한다고 Polston을 학교에서 문제아를 주로 보내는 “안전 담당학장”에게 보고해버렸습니다.

모슬렘 교수의 이런 불공평하고 비상식적인 이슬람우월주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수업시간에는 모슬렘 교수가 이번 수업시간에는 이슬람이 지키는 샤리아법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수업 토론시간에 평소 엄격하게 교란을 준수하는 모슬렘 남학생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학생이 수업시간에 이야기하기를 교란법에 따라 “동성애자, 간음자, 도둑들에게 가장 적당한 처벌은 샤리아법을 따라 특정 신체 일부를 제거해야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슬렘학생의 심각한 발언을 들은 모슬렘 교수는 그 학생을 나무라기는커녕 그 학생에게 농담조가 섞인 투로 “그런 이야기는 잠시 기다리라”고만 한 것입니다. 여러 학생들이 교수에게 그런 말을 한 학생은 위험성이 있으니 정부에 고발해야한다고 했지만 교수가 동의하지 않자, 한 학생이 익명으로 FBI에 신고했습니다.

친이슬람화 된 대학교의 공정치 못한 반응

이 모슬렘학생은 모슬렘교수로부터 아무 경고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학교의 처벌은 더 더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학생인 Polston은 안전담당학장 사무실(Dean of Safety Office)에 불려가 매우 역차별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안전담당학장이 기독교학생에

게 이야기하길 ‘Polston이 수업도중에 주파리(Zufari) 교수와 모슬렘 학생들과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Polston의 행동을 Rollins 대학은 안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학교수업환경을 위협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Polston 학생을 정학시킬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학교의 말을 종합하면, 모슬렘 학생들이나 교수가 수업시간에 한 이야기들보다(기독교에 대한 거짓내용 및 동성애, 간음자, 도둑의 신체 일부를 없애야한다

더 이상 미국 안에 들어와 테러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정책을 세우자, 급진주의 모슬렘들은 그동안 그들을 적극 후원해준 오바마 정부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진보주의 정치인들의 힘을 빌려 미국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려고 전심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디어를 통해 이슬람에 대해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이슬람 포비아” “무슬림 혐오자”라는 낙인을 찍도록 선동하고 있으며, 크리스천들이 모슬렘을 가장 많이 인종 차별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상화 시키고자 할때 사용했던 방법과 똑같은 전략인 것이지요.

아래사진은 모슬렘들이 트럼프 행정법을 비꼬아 “미국을 다시 증오의 국가로”라고 빈정대는 문구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슬람이 믿는 알라를 우리 다음세대에 계속 가르치게 될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국가로 온전히 회복될지 아직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로 신성과 인성을 혼돈시킨 친동성애법안들이 무성했던 시절이후, 더 심각한 친이슬람법안과 문화가 마치 아름답고 평화적인 것처럼 미국 안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오바마 정부에 의해 뿌리내린 친이슬람 사상에 미국까지 유럽처럼 혼돈과 거짓의 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분별력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Rollins 대학은 모슬렘 대학이 아니고 일반 사립대학입니다. 그런데도 모슬렘 교수와 모슬렘 학생의 언론의 자유는 일방적으로 보호하지만 기독교 학생에게는 완전한 역차별을 시켰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밝혀져 감사하게도 기독교 단체에 의해 다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 미국 안에 무너진 기독교인들의 권리와 가치를 회복시키고 있지만 미국은 지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미국과 우리 자녀, 다음세대를 위한 간절한 금식과 기도가 절실합니다.

결국, Polston은 사건에 대한 학교의 공정한 조사도 없이 그냥 정학 조치를 당했고 대학 캠퍼스에 나타나거나 Zufari 교수와 어떤 연락도 못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후에 Zufari 교수가 Polston 학생을 정학시킨 것도 모자라서, 학생이 자신의 목요일 수업에 와서 그녀를 괴롭혔다고 경찰에 거짓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Polston은 그 때 다른 시에서 그의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증거를 제공해서 그녀의 거짓증언에서 자유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사태는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ISIS 테러 국가에서 위험한 인물들이

더 이상 미국 안에 들어와 테러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정책을 세우자, 급진주의 모슬렘들은 그동안 그들을 적극 후원해준 오바마 정부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진보주의 정치인들의 힘을 빌려 미국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려고 전심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디어를 통해 이슬람에 대해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이슬람 포비아” “무슬림 혐오자”라는 낙인을 찍도록 선동하고 있으며, 크리스천들이 모슬렘을 가장 많이 인종 차별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상화 시키고자 할때 사용했던 방법과 똑같은 전략인 것이지요.

아래사진은 모슬렘들이 트럼프 행정법을 비꼬아 “미국을 다시 증오의 국가로”라고 빈정대는 문구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슬람이 믿는 알라를 우리 다음세대에 계속 가르치게 될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국가로 온전히 회복될지 아직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로 신성과 인성을 혼돈시킨 친동성애법안들이 무성했던 시절이후, 더 심각한 친이슬람법안과 문화가 마치 아름답고 평화적인 것처럼 미국 안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오바마 정부에 의해 뿌리내린 친이슬람 사상에 미국까지 유럽처럼 혼돈과 거짓의 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분별력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Rollins 대학은 모슬렘 대학이 아니고 일반 사립대학입니다. 그런데도 모슬렘 교수와 모슬렘 학생의 언론의 자유는 일방적으로 보호하지만 기독교 학생에게는 완전한 역차별을 시켰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밝혀져 감사하게도 기독교 단체에 의해 다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 미국 안에 무너진 기독교인들의 권리와 가치를 회복시키고 있지만 미국은 지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미국과 우리 자녀, 다음세대를 위한 간절한 금식과 기도가 절실합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한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과 구속으로 현재 보수 세력은 침몰되고 좌파사상을 가진 자들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많아 한국 장래가 걱정입니다. 신문을 보니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데 저는 기독교인으로 이 용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나성에서 김 권사

A: 기독교인이려면 마땅히 하나님사랑, 이웃사랑과 함께 조국을 사랑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 역시 이 미국에서 35년째 사는 목사로서 매일 조국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조국 소식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안타까운 조국의 정치 현실에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은 아예 한국 뉴스를 꺼버리고 듣지 않고 있습니다. 좌편향 된 언론 보도를 통해 미디어들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쫓붙을 들고 나가도록 “군중 민주주의”로 세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국은 현재 준전시 체제입니다. 언제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방어무기인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볼 때 깊은 탄식이 나옵니다.

한국은 좌파사상에 오염된 정치인, 국회의원, 검찰, 언론들이 너무 많아

자유민주주의는 입헌주의, 시장경제는 시장에서 가격 형성

나라를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열간이 같은 여당의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배신 정치를 함으로 대통령을 탄핵 하는데 앞장서 결국 좌파 정치꾼들의 야욕을 이루는데 시너 역할을 하고 보수정권이 몰락을 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국의 안타까운 정치 현실을 보면서 크게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와 국가의 흥망성쇠와 지도자인 대통령을 세우고 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거 김교신 선생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으로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보통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와 시장경제(Market Economy)” 체제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헌법에 나오는 대한민국 건국이념으로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주의(Liberalism)와 민주주의(Democracy)가 조합된 개념으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 이념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는 입헌주의라고도 합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및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 원리입니다. 입헌주의는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정치체제로서 입헌 민주주의 혹은 자유 민주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시장경제라는 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를 말합니다. 사회주의 경제를 계획경제라 부르는데 대해 자본주의 경제를 시장경제라 부릅니다. 시장 경제란 모든 경제 활동의 생산 활동은 자유로우며 시장에서의 물품구입도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지고 가격이라는 매커니즘이 생산과 소비를 조정합니다. 시장 경제체제의 원칙은 1)사유 재산권을 인정함으로 재산의 소유와 사용처분이 재산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원칙입니다. 2)경제 활동의 자유입니다. 3)사적 이익의 추구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경제 활동에 참여하여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6기 가정선교 세미나

1. 일 시 : 2017년 5월 6일(토), 오전 10시~오후 5시

2. 장 소 : 남가주 성시교회
7037 Orangethrope Ave., Buena Park, CA 90621

3. 참가비 : \$50 (단, 4월 20일까지 신청시-\$30)
성인부부 교재와 점심식사 제공

4. 강 사 : 이재근 목사(미주가정선교회 대표, Ph.D.)
<가정선교-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쿰란) 저자

5. 기타 안내

- (1) 참가 신청은 이메일(jaekunlee00@hotmail.com)이나, 전화(562-714-0691)로 하시면, 신청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2) 신청서와 수표를 보낼 경우, Pay to를 LLMC로 명기하시고, Rev.Jae Kun Lee(12131 Bertha St., Cerritos, CA 9070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 크리스천비전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남가주 성시교회, 늘 푸른 교회, 주사랑선교회, Love Hope Together Mission

주 최 : 미주가정선교회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나이지리아의 부타-닝기(BUTA-NINGI)



'부타와' 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부타족은 나이지리아의 바우치 지방의 닝기(Ningi)고원에서 약 2만5천명의 작은 소수민족이다.

라지고 있고 하우스족의 언어가 대다수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부타와 어린이들은 현재 지배적인 하우스 언어로 배우고 있다.

삶의 모습

대부분의 부타와는 농사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니아(Guinea) 옥수수과 기장은 그들의 주산물이다.

페스티벌도 있다.

신앙

최근 부타와는 그들의 종교로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전체 부타와 절반 이하는 여전히 전통 민족 신앙을 따른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부타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독교 자료들은 전무하고 사역하는 선교단체도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캘리포니아주, '피난처법' 의결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4일 '피난처주(州)법(Sanctuary State Bill)'을 통과시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는 캘리포니아 상원은 이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27대 12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발의한 케빈 드 레온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연방기금을 꿰뚫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람교 무서운 팽창...21세기말 기독교 제쳐

2001년 이후 영국 런던에서 500개의 교회가 사라진 반면 무슬림을 위한 이슬람 사원은 423개가 들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연구기관 '게이트스톤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이슬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소는 "영국의 다문화주의의 정책으로 423개 모스크가 새로 들어서는 등 영국의 이슬람 문화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2001년 이후 런던에서만 500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일반 가정집이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영국에는 100만 명이 가까운 무슬림이 늘어났다.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도시인 버밍햄의 경우 과거 테러에 연루됐던 여러 명의 지하디스트들이 활동하고 있다. 버밍햄에서는 또 모스크에서 하루 3번 큰 소리를 내는 스피커로 이슬람식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집트 북부 지역의 콥트교회 두 곳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연쇄 폭탄 공격이 발생해 최소 38명이 사망하고 13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이집트 보안 당국 관계자는 "누군가 교회 내부 앞좌석에 폭발물을 설치한 뒤 원격 조종으로 터뜨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는 이날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러 알렉산드리아의 '세인트 마크' 콥트교회에서도 자살폭탄 공격으로 추정되는 폭발로 최소 11명이 죽고 66명이 부상했다고 내무부가 전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테러범이 예배당 앞에서 경찰 저지를 당하자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다.

(6.9%·5억 명) 등 보다 많다. 그러나 기독교는 21세기말이 되면 '젊은' 이슬람교에 밀려 세계 1위 종교에서 밀려날 것으로 추정됐다.

센터는 2010-2015년 대륙별로 각 종교마다 자연출산 증가율을 분석해 이같이 분석했다. 2010년에는 기독교인이 21억7000만 명, 무슬림이 16억 명이었지만 2050년에는 기독교인 29억2000만 명, 무슬림이 27억6000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센터는 특히 유럽에서 무슬림의 확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2010-2015년 기독교인의 수가 560만 명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종려주일에...이집트 콥트교회 폭탄테러 최소 38명 사망

이집트 북부 지역의 콥트교회 두 곳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연쇄 폭탄 공격이 발생해 최소 38명이 사망하고 13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AP통신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9일 오전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북쪽으로 120km 떨어진 탄타 시내 '마르 기르기스' 콥트교회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 27명이 죽고 70여명이 부상했다고 이집트 보건부가 밝혔다.

이집트 보안 당국 관계자는 "누군가 교회 내부 앞좌석에 폭발물을 설치한 뒤 원격 조종으로 터뜨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는 이날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러 알렉산드리아의 '세인트 마크' 콥트교회에서도 자살폭탄 공격으로 추정되는 폭발로 최소 11명이 죽고 66명이 부상했다고 내무부가 전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테러범이 예배당 앞에서 경찰 저지를 당하자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다.

IS는 아마크 통신 웹사이트를 통해 "우리 대원들이 두 교회에서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콥트파 기독교 신도는 이집트 인구 9000만명 중 10% 정도를 차지하며 오래전부터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 공격의 타깃이 돼왔다.

"SNS 오래 이용하는 아이는 불행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오래 사용하는 아동의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영국 셰필드대 연구진의 보고가 나왔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9일 '셰필드대 연구진이 아동의 SNS 이용과 삶에 대한 만족도의 상관 관계를 조사했다'며 "페이스북이나 스냅챗과 같은 SNS와 오랜 시간을 보낼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년들은 할례를 받기 위해 숲의 신성한 장소로 가게 된다. 두 달 동안 그들은 마을사람들이 그들에게 음식을 가져올 때 빼고는 격리돼 이 시간동안 '도도'(선조의 이미지로 마스크를 쓴)의 도움으로 부족의 비밀들을 배우고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며 그들의 아버지나 형들을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부타와는 몇 개의 문화적 축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은 오늘날 여전히 그들의 축제로 즐긴다. "과르마 과(Gwarma Gom)"이라는 축제는 매년 1월에 신에게 드리는 감사제이고 이 기간 동안 부타와는 새로운 노래를 지어 부른다. 2년마다 열리는 애도의 날은 죽은 사람들을 기린다.

소년들의 입적 의식은 부타와에 게 매우 중요하다. 7살이 넘는 소

를 오래 이용할수록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SNS 사용이 아동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낼 수 있었다. 과거의 연구들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어떤 SNS가 좋다, 또는 좋지 않다고 지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영국 아동학대예방기구(NSPCC)는 "SNS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SNS로 인한 자해로 병원에 입원한 아동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 다시 보수 우위...고서치 공식 취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49) 연방대법관이 공식 취임했다. 이로써 보수와 진보가 4대 4로 팽팽했던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로 기울어졌다.



1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개 취임식에는 트럼프와 미치 매크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8명의 대법관 등이 참석했다. 고서치는 "위대한 나라의 헌법과 법률을 지켜내는 믿을 만한 일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지난 7일 상원은 고서치의 대법관 인준안을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발동해 인준에 반대하겠다고 공언하자 공화당이 '핵 옵션' 의사 규칙을 통과시켜 이를 무력화했다. 핵 옵션은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찬성 60표에서 과반(51표)으로 낮추는 의사 규칙이다.

지난해 2월 안토니 스킨리아 전 대법관이 사망한 뒤 8명으로 운영됐던 연방대법원은 14개월 만에 9명 체제로 돌아왔다. 고서치의 취임으로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 다수까지 점하게 됐다. 반(反)이민 행정명령 좌초, 러시아와의 유착설 등으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어온 트럼프로서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시리아에 강공으로 선위한 미국...기회일까 위기일까

시리아 사태에 직접적인 개입을 꺼리던 미국이 7일 본격적인 군사작전에 돌입하게 된 배경엔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응징'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국내의 정세가 얽혀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전 세계를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화학무기 공격으로 시리아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시점에 강공으로 전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집권 슬로건을 군사외안보 영역으로도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풀지 못한 시리아 문제를 후임자가 해결한다는 인상을 심어주며 중동을 넘어 국제 정세에서 다시 '힘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며 군사 개입을 예고했지만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6년의 내전 기간 동안 반군을 겨냥한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은 이번 화학무기 공격 참사를 비롯해 숏한 민간인 희생자를 양산해 왔다. 시리아 내전 종식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알아사드의 전두기를 시리아 하늘에서 걷어내는 일이 급선무였다.

최근 들어 정치적 발원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이날 "시리아 정부가 더 이상 화학 공격과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정부군의 비행장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시리아는 당장 '침략행위'를 운운하며 비난했다.

그는 이어 "오늘 공격으로 시리아 정부의 테러러전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것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고 비교했다. 시리아 관영 사나통신은 이날 미국의 미사일 공격으로 공군기지 인근 마을 3곳에서 어린이 4명을 포함해 민간인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이번 공격으로 시리아 공군 준장을 포함 최소 4명의 정부군이 사망했으며,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아직 현지 소망 당국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한 사상자 수 집계는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어 "(시리아 내) 가장 민감한 (군사) 인프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시리아군 방공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여 시리아에 배치한 러시아의 첨단 미사일방공시스템 S-300과 S-400 등을 추가 도입할 뜻을 내비쳤다.

반면 정부군과 대치 중인 시리아 반군은 이날 미국의 공격을 환영하며 "시리아군의 공군력을 궤멸할 수 있는 더 많은 공격을 원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취임 77일 만에 첫 군사작전을 명령한 트럼프가 기회와 함께 위기를 갖게 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인 51%, 트럼프 시리아 공습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하기 위해 시리아 정부군에 미사일 공격을 명령한 것에 대해 미국인의 절반이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허핑포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7-8일 미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시리아 공습을 '지지한다'는 답변이 51%로, '반대한다'(32%)는 의견보다 많았다. 17%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83%가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11%는 '반대한다'고 했다. 미국인의 40%는 이번 공습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라고 답했다. 25%는 '너무 공격적이었다'고 답했으나, 10%는 '충분히 공격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리아에 대한 추가 군사 공격 여부에 대해선 '해야 한다'(20%)보다 '해선 안 된다'(36%)는 답변이 더 많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폴 라이언 하원의 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필요하다면 국익을 위해 (시리아에 대한) 추가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시리아 공격은 반(反)이민 행정명령 무산과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 폐기 무산 등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파구를 마련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세 교회의 예배와 음악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 예배이다. 종교개혁은 10세기를 흘러온 중세 교회의 전통으로부터 독립된 개신교 교회를 출범하게 하였다. 그 중심에는 신학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루터가 성경에서 발견한 이신칭의 교리는 새로운 교회 역사를 시작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 후 많은 것이 변했다. 개혁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세 교회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에서 사용되던 음악이다.

590년 교황 그레고리 1세(Gregory I)의 재위와 함께 중세 교회가 출발하였다는 것이 교회사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로마가톨릭교회는 전례를 매우 중시한다. 그 중심에 '교회 전례의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는 그레고리 1세가 있다. 그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로마교회의 전례 양식의 전통의 뼈대를 구축한 장본인이다. 그가 이루어놓은 공헌 중에 하나는 교회 음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레고리오 성가'를 교회에 도입한 것이다. 그레고리 성가는 반주 없이 단선율로 부르는 성가를 말한다. 성가를 담당하기 위하여 소년과 남성들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는 성가대의 전통이 이와 함께 시작되었다. 예배에 음악의 위치가 확고해 진 것이다.

단선 음악인 '그레고리 성가'는 다성음악, 즉 여러 성부로 이루어진 세속음악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쉽게 설명하자면, 소프라노 하나로 부르던 노래를 알토, 테너, 그리고 베이스를 넣어 화음으로 부르는 음악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중세 로마가톨릭교회는 세속 음악의 발전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들이 전수받은 교회의 전통이란 범주에 그레고리 1세가 출발시킨 교회음악의 전통을 집어 넣은 것이다.

그들은 미사를 위한 음악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럼수록 그들의 전통을 고집하였다. 참고적으로 현재 로마가톨릭교회는 더 이상 그레고리 성가를 중시하지 않는다. 교회의 전통보다 현대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모였던 1960년에 열린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 생긴 일이다.

음악가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는 음악가였다. 어려서부터 전문적인 음악 훈련을 받았다. 여가 시간에 악기 연주를 위해 레슨을 받는 정도가 아니었다. 라틴어 학교에 다닐 때부터 음악 교육을 받았고, 심지어 대학교에서

도 음악이론과 악기 연주법 그리고 작곡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남다른 음악성을 타고 태어났다. 음악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행복하게 여겼다. 자신이 신학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음악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다. 이런 교육의 영향으로 루터는 평생 음악 속에 살았다. 음악은 그의 삶의 한 부분이었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루터는 성도들의 신앙을 위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확신하였기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공을 들였다.

예배 시간의 회중 찬송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찬송은 마음의 고백이다.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찬송에 담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나 중세 로마가톨릭교회

위한 음악의 개혁이었다. 루터는 음악을 작곡할 정도로 음악에 조예가 깊었다. 그의 종교개혁에 지지하는 음악의 위치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의지도 있었고 능력도 따랐다. 그러므로 개혁 정신을 교회 음악에 직접 적용하였다.

그는 음악 자체가 지닌 고유 기능을 잘 이해하였다. 음악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확

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음악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다.

음악은 예배에 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냄으로서 신앙에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 음악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뒷짐을 지고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선포를 맡은 자들이 이 일을

든 순서를 음악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전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예배였다. 루터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이에 필요한 음악을 작곡하였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사로 하여 작곡된 음악이 흘렀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이런 예배가 드러지면서 회중들이 직접 노래 부르는 시간이 생겨난 것이다. 개혁을 통해 성경이 성도들의 손으로 돌려진 것처럼, 루터는 교회의 전통에 갇혀있던 회중 찬송을 해방시켰다. 루터는 과감하게 회중 찬송을 단순하게 만들었다. 그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가장 관심을 두었던 것이 있었다면, 누구든지 그의 번역본을 읽는 자들에게 그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는 것이었다. 이해하기 힘든 단어와 개념이 쉽게 이해되면서도 원문의 뜻이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열중한 것이다.

회중 찬송도 이와 마찬가지로. 음악적으로 훈련을 받지 못한 성도들도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을 선호하였다. 음악적인 기교나 아름다움을 전혀 무시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을 부르는 성도가 가사가 지닌 의미와 곡조가 지닌 수단의 중요성을 분리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루터는 작곡가였다. 모두 41편의 코랄 형식의 찬송시를 썼다. 그중에 하나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이다. 그는 1528년에 시편 46편을 근거로 하여 이 찬송시를 쓰고 작곡하였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약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배에 이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개신교 교회를 주도한 종교 개혁자의 작품이어서가 아니다. 음악적으로 현대인의 감각에 절대로 처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루터는 회중 음악을 위해 자신이 작곡한 찬송뿐 아니라, 세상에서 사용된 음악이나 중세 교회의 음악을 조심스레 도입하기도 하였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흑백 논리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특정인이 제시하는 기준에 의해 이것은 수용할 수 있고 저것은 생명을 다해 막아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하지 않았다. 예배 음악도 마찬가지였다.

현대 교회가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음악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점검이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어야 한다. 자신의 음악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어야 한다. 누가 작곡한 어떤 행태의 곡을 선택하느냐 보다, 과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에 근거하여 그 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1세기 교회의 개혁의 출발점은 반드시 신앙적인 것이어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종교개혁 500주년 - 무엇에 관심을 기울일까? (7)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루터는 사제와 성가대 전유물로 전락한 음악을 회중찬송으로 바꿔 예배 음악 기능을 하나님 말씀의 선포적 요소와 유사하다고 판단

다. 루터의 음악사랑은 그가 주도하였던 종교개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가 중세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성경에 비추어 점검하고 개혁을 감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시 질문

는 미사에서의 음악의 역할은 회중이 아닌 사제와 성가대의 전유물로 전락해 버렸다. 그것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 가사로 작곡된 음악을 들어야 했다. 세속 음악은 눈부시게 발달되어 교회 밖에서는 흥겨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지만, 교회에 오면 마음에 전혀

신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음악을 구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와 함께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음악이란 도구를 소유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음악 자체가 개인에게도 큰 유익을 주는 도구임을 잘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교회에서 음악을 맡은 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가 가장 먼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분명하여 자신의 음악성이나 기술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명을 받았다

예배 음악에 대한 기본적 자세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어야 음악성 자랑 아닌 확고한 신앙에 근거한 찬양으로 하나님 선포

을 갖게 되었다. "왜 초대교회의 전통이 사라져버렸는가?" 초대교회의 예배에는 회중 찬송이 그 중심에 있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엡5:19). 성도들이 함께 마음과 목소리를 합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것이다.

루터는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의 음악이 사라진 것을 지적하였다. 마치 중세 교회의 전통으로 인하여 성경이 성도들로부터 멀어진 것을 한탄하였던 것과 같은 심정을 가진 것이다. 그는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였다. 성도들이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정당성이 바로

와 닿지 않는 노래를 듣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성가를 맡은 자들의 삶도 성직자의 타락과 비금갈 정도로 큰 문제로 여겼다. 음악을 맡은 특정한 사람들은 자신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에 갇혀 살았다. 음악가들의 부패와 함께 교회음악이 부패한 것이다. 교회 음악의 발전은 신앙과 상관없는 기교 중심이었다. 성가대에 속한 자들이나 오르간을 연주하는 자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어떤 방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루터의 음악 개혁

루터가 구상한 종교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회중이 직접 참여하는 예배였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알고 있었다.

루터는 음악 사랑에 빠진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음악은 인간의 근심 걱정을 몰아내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사실을 잊지 않았다. 음악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다고 믿었다. 인간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음악 자체에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이런 음악에 대한 그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예배를 음악이 지닌 성격이 매우 독특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예배 음악은 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분인이 영적 유익을 경험하는 유익을 주는 것으로 국한되어 생각할 수 있지만, 루터는 예배를 위한 음악의 기능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선포적 요소와 유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의 음악을 맡은 자들은 뛰어난 음악성과 함께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루터는 성직자들도 음악적인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음악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예배가 되기 위함이었다.

회중이 부르는 찬송

루터가 1526년에 저술한 "독일어 미사"가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는 독일어로 된 예전을 신중하게 작성하면서, 아예 음악으로만 구성된 예배의 형태를 제시하였다. 설교와 주기도문 해설을 제외한 모

2017년 봄학기 **B** 베데스다 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www.buc.edu

"ACF 선정 Online 교육과정 미주 7위" (2015)

입학상담 자세한 정보는 buc.edu를 통해 확인하세요.

1-714-683-1207 (입학처) ▶ admissions@buc.edu

TEL: 1-714-517-1945 / FAX: 1-714-683-1440 ▶ www.buc.edu

모집학과

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B.A.): 목회학/성서신학/기독교교육학/선교학 · 대학원(M.Div.): 목회학/성서신학 · 박사(D.Min.): 목회학 박사
음악	<p>학부(B.A.)/대학원(M.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반악/관현악/작곡/지휘/찬양사역/실용음악/뮤지컬/컴퓨터, 영화음악
경영학	<p>학부(B.A.)/대학원(M.B.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경영/스포츠경영/법무행정 · 경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유아교육	<p>학부(B.A.)/자격증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프리스쿨, 차일드케어 및 교회 유치부, 유년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ESL	<p>ESL I-20/ Certificat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 대학원생을 위한 본 과정과 ESL Certificate을 위한 어학연수 과정
온라인	<p>학부(B.A.)/대학원(M.A./M.Di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 어디든지 온라인과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대학 스포츠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 축구부/남녀 농구부/야구부 · 미국 기독교대학 체육협회 NCCAA에 가입되어 체육 특기생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정규 4년제 대학교
SEVIS I-20발급

정부학비지원 (Financial Aid)
각종 장학금 혜택

BETHESDA UNIVERSITY | 730 N. Euclid Street, Anaheim, CA 92801

리더십 코멘터리 (40)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오늘도 잔인한 비수가 리더의 가슴을 찌른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 출신인 T. S. 엘리엇(Thomas Stearns Eliot)은 그의 서사시 '황무지' 가운데 제1부인 '죽은 자의 매장'이란 부분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했다. 단 한번뿐인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다.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힘써 일하고 노력해도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다. 몸은 지치고 피곤해서 마음은 무겁지만 한데 무엇 하나 즐거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삶에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도 꿈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 나갈 수 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잔인한 4월을 보내고 있다. 지금은 뒤돌아보지 말고 꿈과 목표를 가지고 전진, 또 전진을 해 나가야 할 때이다.

절망의 포로

오늘 현재 73억8천만 명이 넘는 인류가 지구상에 살고 있다. 서로 인종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문화와 습관이 모두 다르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오직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 가슴에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절망의 포로'와 그 절망을 극복하고 가슴속에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희망의 포로'가 그들이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라고 정의했다. 인간은 희망이 있을 때는 살아갈 용기가 있는데 희망이 없으면 기운이 빠져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상실되어 인생을 포기해 버리고 만다. 절망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술과 도박 그리고 마약에 빠지거나 방탕한 삶으로 일관하면서 될 대로 되라고 인생을 포기해 버리고 만다. 심지어 하늘만 쳐다보며 잠도 안자고 먹지도 않고 식물인간이 되기도 한다. 결국은 우울증의 노예가 되어 마음의 즐거움이 없고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대꾸도 하지 않고 완전히 고립된 인생을 살게 된다. 절망의 포로로 산다는 것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인

생인 것이다.

미국의 소설가 헤밍웨이는 노벨 문학상과 풀리처상을 받았던 20세기를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리더이다. 그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등의 명작들을 남겼다. 헤밍웨이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는 의사로서 평생 선교사가 될 꿈을 꾸었고 어머니 또한 신실한 신앙인이었다. 그러나 헤밍웨이는 성장하면서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불신앙의 길 가운데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절망의 포로가 되어 자살하고 말았다. 그는 생의 마지막 무렵에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쫓으려 해도 쫓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은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라고 고백했다.

영향력 있는 리더가 돈과 명예 그리고 건강을 욕망을 가지고 있어도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리더가 절망에 빠지면 힘과 용기를 상실하고 조직에 대명령이 없고 가게 된다. 절망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 희망은 좋은 약과 같아서 심신을 치료한다.

희망의 포로

희망의 포로가 되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 되어도 삶의 용기를 잃지 않는다.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이 찾아와도 그것을 견뎌내고 나아간다. 적극적으로 고난을 이겨 낼 수 있다. 희망의 포로가 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창조적인 리더가 되어 삶에 꿈과 행복이 넘쳐난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 런던이 폭격을 받았다. 런던의 모든 기차들이 모였을 때 누군가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적인 기사를 쓰자는 제안을 했다. 그날 이후로 신문들은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싣고 군대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의 늙은이들 모습은 보도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을 전쟁터에 보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러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자 갑자기 영국 전체에 희망이 샘솟기 시작했다.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전쟁의 승리를 국민 전체가 믿기 시작했다. 비록 현실은 우울하고 암담했지만 희망을 통해 창조적인 일들이 생겨난 것이다. 위기상황 속에서도 리더가 끝까지 희망을 가질 때 놀라운 힘이 나타난다. 희망을 포기한 리더는 죽어 가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리더는 모진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끝까지 살아남는다. 리더가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의 포로가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현재의 고통과 상관없이 삶의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다.

리더여, 희망전도사가 되라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은 공백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돈이나 쾌락을 가지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코 만족함을 줄 수 없다. 왜

인나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삶의 모든 문제를 절망으로 볼 것인가 희망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닌,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절망의 포로가 되어 죽음에 이르지 말고 희망의 포로가 되어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는 희망전도사가 되기를 소망한다.

종말에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목표를 세워라

미국에는 골퍼(golfer)들이 많이 있다. 이곳저곳에서 골프를 치면서 즐긴다. 골프장에는 어느 지점에 홀(hall)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깃발이 있다. 깃발을 보고 그 지점을 확인하고 힘을 다해 공을 쳐서 그 홀에 다다르게 한다. 세상사람 가운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이루고 싶은 것이 꼭 한 가지씩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라틴어로 목표라고 하는 말이 '피니스(finis)'인데 이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왜 목표와 종말이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심오한 뜻이 있다. 인생의 종말에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목표가 참 목

표라는 것이다. 당신에게 리더로서 이러한 인생의 참된 목표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왕 목표를 정한다면, 진짜 목표를 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힘을 다해 이루어야 할 참 목표를 세워라.

인생이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참세전에 선택되었고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보내진 것이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이다. 또 예배하기 위해서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금 편해졌다고 '이만하면 되겠다' 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부터 그것은 퇴보하는 인생이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리더가 되라.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길 때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실 것을 믿는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하여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한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고통을 사는 자들

일년 내내 손발이 부르드도록 일을 해도 여전히 공색함을 면키 어려운 힘든 삶을 사는 자들, 장애아동의 부모가 되어서 하루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여 동서분주한 이들, 몸의 거동이 힘들어 하루의 반은 거의 침대에 머물러야 하는 자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면 어떤지 우리는 말수가 적어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고통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고통이 습관처럼 늘 따라다니는 사람, 그래서 굳이 책을 펴들지 않아도 그냥 고통이 삶으로 체득된 사람에게는 '요즘 어떠세요?' 라는 물음이 무색해서 교회에서 눈을 마주쳐도 그냥 웃기만 한다.

시절을 잘못 만나, 사람을 잘못 만나, 일을 잘못 만나, 삶의 해결책이 이 길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 은퇴 후 할 일도 찾아주는 이도 없어서 잠과 벼를 삼고 TV와 벼를 삼으며 진저리 쳐지는 외로움과 싸우다 교회에 찾아 나온 사람들, 밀고 당기고 저울질 하는 피곤한 삶 가운데 나이를 따지고, 돈을 계산하고, 얼마나 알고 있나 재고, 얼마나 주고 받았나 셈하면서 늘 없다는 것으로, 내가 더 많이 손해 본 것 같은 속상함으로 불평의 주제를 삼고 사는 우리네들... 마음이 아플 때, 그저 위로받고 싶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넘두리한 게 다시 비난의 소리로 돌아와 그 생체기와 파랑계 멧든 가슴을 안고 이웃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가슴이 시려운 자들...

우린 그렇게 마른 광야에서 고통의 기인 시간들을 지나오며 낮춰지고 낮춰진 밑바닥에서 어떤 어떤 외로움도 고통도 다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또 환경이 바뀌면 여전히 무너져 내리는 우리네 모습에 또 식상한다. 그 고통을 덜 느끼고 살려면 기억과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데 어떤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기억하고 있는 것들과 또 앞으로 기대하는 것들의 엇갈림 속에서 진짜 고통스러운 해산의 시간을 덧없이 보내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 슬픔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지혜를 조금만 가지면 같은 환경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을 알게 되고 사람을 알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모두가 사랑인 것을... 그래서 밀고 당기고 저울질 하는 피곤한 삶이 아닌 그냥 계산 없이 덤석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멋있어 보인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는 것에 길들여진 분들의 주변에는 어떤지 평안함이 흐르는 것 같다.

아침에 생일이라고 보내준 문자들을 보며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그 받은 은혜를 갚아야지, 잘 살고 살아야지 하는 다짐을 해본다. 어제보다 오늘 더 착하고 진실 되게 살아야지 하는 욕망이 올라오니 그게 금방 눈물이 되어 내 뺨에 주르르 흐른다. 생명력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는 일이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그렇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고통가운데도 넉넉히 일어설 수 있는 믿음 하나만 선물해 주시옵소서! 믿음 하나면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낼 테니까... 이것이 새벽마다 드리는 나의 기도이다.

누구에게나 자기 삶에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것들이 있는가 하면 꼭 하나 빼 버리고 싶은 것이 있다. 삶이 힘들다고 느낄 때 백지 한 장에 그저 생각나는 대로 좋은 단어들을 100가지만 써보자. 단지 적기만 했을 뿐인데 맘속에 그런 것들로 꽉 찬 영혼의 배부름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세상에 진리가 없어서 어두운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다만 그 진리를 진리로 믿지 않아서인데... 아무리 진리가 넘쳐나도 자기 욕망에 빠진 사람은 그 진리가 가슴에 다가올 리가 만무니까...

changsamo1020@gmail.com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45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이미경 간사 1-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목회서신

성도의 4무(無)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현대교회 성도들이 가지지 못한 4가지 무(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없다는 말은 필요한 것인데, 꼭 있어야 하는 것인데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세에 이르는 과정에서 크게 변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1. 사랑이 없다.
마태복음 24:12을 보면, “불법이 성행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를 흔히들 무정하고, 비정하

고, 매정하고, 몰인정한 정이 메마른 사회라고 말합니다. 정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신세상은 그렇다고 해도,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은 사랑이 넘쳐나야 하는데,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기는커녕, 갈등과 미움으로 가득차 교회가 분쟁하며 분열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 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롬13:8)고 했습니다. 성경

의 주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가져야 할 최고의 인격도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도가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2.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고후6:1-2)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되돌아보면, 일제36년과 해방 후 공산치하에서의 순교시

대, 정부수립 후 은사와 체험이 강조된 60-80년대까지의 한국교회의 대부흥시대를 거쳐, 90년대 이후부터는 말씀중심의 소그룹 중심의 성경공부 모임으로 발전하여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말씀사역이 강조되면서 평신도들의 성경지식은 목회자의 수준까지 높아졌지만, 은혜는 식어졌고, 교회문제는 처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랑은 식어지고 미움만 증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1시간 이상 2-3시간씩 설교해도 짜증 없고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을 사모한 다면서 설교가 20분만 넘어가도 사지를 털며 야단법석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3. 눈물이 없다.
앞서 현대사회를 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메마른 사회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것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회입니다. ‘눈물이 없다’

는 것은 무감사, 무감각, 무감격,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간혹 장례식을 가보고 느끼는 것은 부모의 죽을 앞에서 자녀들이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고 맹송맹송서 있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메마른 세태를 실감하게 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흥수같이 넘치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무감동, 무감격하고, 찢림도 없고, 회개도 없고,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이 맺힌 눈물, 억울해서 우는 눈물, 서러워서 우는 눈물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간구의 눈물,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자녀를 위한 눈물(눅23:28)은 흘려야 합니다.

4. 베품이 없다.
세상에는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1)남에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 (2)남에게 받기만하고 주지는 않는 사람 (3)

남에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사람 (4)남에게 주지만 받고 받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남에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과 남에게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사람은 이기적인 양태로 이어집니다.

성도의 영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20:35) 라고 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약 2:17,26)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결과로 선한 행함과 베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행함과 베품이 없기에, 교회와 성도가 불신자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이 시대의 종교개혁” 주제 KAPC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컨퍼런스

미주한인에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고택원 목사)가 주최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컨퍼런스가 “이 시대의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로 6일 오후 5시부터 필라 기쁨교회(담임 박성일 목사)에서 개막했다.



KAPC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 컨퍼런스는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지역의 목회자들과 비블리칼 신학교 동문과 재학생, 인근 지역의 평신도들, 해외 선교사들에 이르기까지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고택원 총회장은 개회사에서 교단(KAPC)을 소개하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단지 시간적인 기념의 기쁨이 아니라 종교개혁 정신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를 하나님에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나가는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강사들과 지역 교회의 후원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첫 기조강연은 김성봉 목사(한국 개혁주의장로교연구소장)가 “종교개혁의 내용과 의의 그리고 이후 500년”이란 주제로 했다.

이 박사는 종교개혁의 내용과 의의를 교리, 교회, 생활 등의 분야로 나눠 설명하고, 종교개혁 후 500년 동안의 변화를 계몽주의의 영향, 과학주의의 영향, 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던의 출현, 영성 운동과 신비주의의 회귀, 과도한 교파 분열과 관련해 발표했다.

만찬 후에 시작된 컨퍼런스는 고택원 목사(총회장, 필라델피아 새한교회 담임)가 개회사를 했으며 김영천 목사(필라델피아 회장)의 축사, 최해근 목사(몽고메리장로교회

담임)의 기도, 영성장로교회 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Dr. Frank James(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총장)의 주제 강의 “종교개혁이 현시대 교회에 던지는 질문”이 있었다(동역 조영천 목사).

이어 박성일 목사가 헌신의 찬송 및 기도 후 김풍운 목사(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폐회기도 및 축도로 첫날 일정을 마쳤다.

둘째 날은 허상희 목사(총회서기, 뉴저지성도교회 담임) 기도 후 몽고메리장로교회 찬양대와 이한나(Violin) 자매와 최영지(Cello) 자매 협주, 최정숙 소프라노 독창이 있는 후 강의에 들어갔다.

첫 강의는 김은일 교수가 “종교개혁적 성경관을 통하여 본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했다. 종교개혁 시대의 3명의 인물 존 칼빈과 마틴 루터, 제이콥 알미니우스가 로마서 7장 14-25절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비교했다.

조진모 박사는 “칼빈의 지식과 경건: 성경적 신앙 개혁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첫째,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둘째,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셋째,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조 박사는 “이 시대의 신앙 개혁을 위해 칼빈으로부터 얻을 수 있

는 교훈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신앙의 목적과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성경의 진리 안에서 지식과 경건이 일치되는 신앙이어야 한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위한 신앙 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 넷째, 개인의 영역을 넘어 교회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영천 박사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목회의 개혁”이란 주제의 강의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9년 동안에 1,385번의 전체 회의를 했을 정도로 목회적 관심이 지대했으며,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결국 성경론을 무시하지 않았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중심적 목회와 설교를 통하여 목회의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강의인 김성봉 박사는 “오늘날의 한국 개혁교회의 현황과 교회의 개혁” 제목으로 강의에서 한국 개혁교회의 현황을 살핀 후에 오늘날의 한국 개혁교회의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김 박사는 “신학의 미숙함 가운데 분열을 거듭한 장로교회에는 과도한 분열, 신학적 풍요와 빈곤, 목회 현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성경 해석에 있어서 공교회성의 약화 등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났다.”(10면으로 계속)



AM1230우리기독교방송 개국감사예배가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에서 열렸다

우리기독교방송 개국감사예배 라디오방송 1230 채널 사용

우리기독교방송(대표 김홍수) 개국감사예배가 11일 오전 10시30분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렸다.

오상철 박사(부사장, 코리아저널 편집장)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이진형 목사(ANC은누리교회)와 케린황 집사(ANC은누리교회)의 클래식 기타 & 바이올린 이중주, 민킵 행장(오픈뱅크)와 조용중 박사(KWMA사무총장)이 영상으로 축하하시며, 우리기독교방송 프로그램

진행자 소개가 있었다. 이어 34지구 연방하원 로버트 안후보가 축하 인사를 했으며 선거참여를 부탁했다.

스티브 황보 라팔마 시의원이 대표기도 했으며 박희민 목사(한미선교재단 이사장, 새생명선교회 대표)가 설교했다. 설교에 이어 송정명 목사(월드미선대학교 총장) 박성근 목사, 이호우 목사(OC교회회장) 등이 축사했으며 이준성 목사 빌리노 목사가 ‘김타란. 타고가 만나는 자

리’ 실행중계 했다.

또 본방송 프로그램 진행자 소개 시간을 가졌으며 클라라김, 박갑수 목사가 헌금특송을 불렀다.

이날 예배는 김영대 목사(남가주 한인목사회 중경회장) 축도로 마쳤다.

우리기독교방송은 라디오방송 1230을 임대해 방송한다.

(박준호 기자)



에어비엔비 한 호스트의 인종차별(‘아시아인은 안돼’라며 예약거부) 사건의 피해자인 단인 서씨가 10일 한미연합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지구상에 남은 한사람이라 해도...당신은 아시아인” 한미연합회, 에어비엔비 인종차별 피해자 기자회견

한미연합회(사무국장 방준영)는 에어비엔비(Airbnb) 집 주인으로부터 차별당한 경험을 세상에 알리고 용기 있게 대응한 한인 단인 서(Dyne Suh) 씨 기자회견을 10일 오전 10시30분 한미연합회 컨퍼런스 룸에서 가졌다.

단인 서 씨는 “지난 2월 친구들과 함께 빅베어 마운틴으로 여행가기 위해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엔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다. 여행가는 날 남가주에는 비가 많이 왔다. 빅베어에는 눈이 많이 왔을 것으로 짐작하고 에어비엔비에 텍스트로 문의했다. 눈이 너무 많이 와 차량이동이 어려우면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문의했는데 업체에서는 이미 한 팀이 해당숙소에 무사히 도착했다.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으니 충분히 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 씨는 “친구들과 빅베어로 향했으며 숙소에서 15분후에 도착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다. 숙소에서 서씨 일행의 예약을 허락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서씨는 핸드폰 스크린샷으로 남겨진 에어비엔비와 문의한 내용을 숙소 측으로 전달했다. 그러자 숙소측에서는 “당신이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한 사람이라고 해도 방을 내주지 않겠다”면서 “한 마디로 정리하겠다. 당신은 아시아인”이라는 거절메시지를 받게 됐다”고 정황을 알렸다. 이후 에어비엔비 측은 집주인을 에어비엔비 호스트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했다.

단인 서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 비록 숙박은 거절당했지만 에어비엔비에 호스트로 등록된 많은 분들이 제가 당한 불이익에 대해 함께 아파했으며 아시아인들을 환영한

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무료로 숙박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말했다.

서씨는 “이번 사건은 비록 제가 불이익을 당한 것이지만 이번 일이 법적으로 진행되기보다 미국에 사는 백인, 흑인, 아시아인, 히스패닉 등 모든 민족들이 인종차별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더 이상 인종차별이 일어나지 않게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서 씨는 또한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민자들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물고기 한 마리는 커다란 물고기에 먹이가 되기 쉽다. 하지만 작은 물고기들이 힘을 합쳐 헤엄친다면 쉽게 먹이가 되지 못하듯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등 모든 이민자들이 힘을 합한다면 인종차별 이슈는 극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연합회는 중재 및 분쟁 조정이 필요한 이들에게 4.29분쟁조정센터(4.29센터) 활용을 알렸다. 4.29센터는 1992년 LA폭동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타인종간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1997년 설립됐다.

특히 4.29센터는 LA 카운티 및 오픈티카운티 내 시민들이 법정 다툼까지 가지 않고 중재를 통해 인종 간의 갈등 완화와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준영 사무국장은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못하고 각자 다른 시각을 갖고 살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대화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타협이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LA총영사관 복수국적자 이탈 신고 늘어 올 1-3월 총230건...전년대비 47% 증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은 관할지역 내 국적이탈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1-3월 국적이탈 신고 건수가 총 230건으로 작년 동기 155건 대비 47%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증가는 국적이탈 신고에 대한 홍보가 강화됨에 따라, 올해 만 18세가 되는 1999년도 출생자가 국적이탈 신고 만료 시점인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국

	2014	2015	2016	2017
1-3월	133	161	155	230
1-12월	266	381	472	

(최근 4년간 LA(총) 국적이탈 접수 현황)

‘추억’ 주제 더텐트 콘서트 성황 세월호 3주년 기념 공연도 함께 가져

더텐트(대표 다니엘방 목사)는 ‘추억’이라는 주제로 콘서트를 이음 카페에서 8일 오후 6시30분에 열었다.

신동희 목사(남가주기쁨의교회) 사회로 열린 콘서트는 OC첼로앙상블(대표 에스더주), 소프라노 김은혜, 베이스 이사호, 피아니스트 박세화, 찬양사역자 이민우 전도사가 출연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OC첼로앙상블이 ‘Por Una Cabeza’, ‘Amazing Grace’, ‘Canon in D’ 등을 연주했으며 소프라노 김은혜 씨가 ‘산유화’, ‘Quando men vo’를, 베이스 이사호 씨가 ‘명태’를 불렀으며 이준성으로 돈조바니의 ‘La co darem la mano’를 불

렀다.

또 세월호 3주년을 기념하며 이사회 씨가 ‘기다리는 마음’을 불렀으며 김은혜 씨와 함께 ‘내 영혼 바람되어’를 불렀다.

이어 이민우 전도사는 ‘Let it be me’, ‘행복의 나라로’, ‘하룻밤’을 불렀으며 앵콜곡으로 ‘홀로아리랑’을 불렀다.

다음 공연은 오는 6월 24일 가주 영어학교 내 파킹장에서 갖는다.

(사진 11면)
(박준호 기자)

적이탈 신고와 관련해 올해는 국내에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교민들의 국적이탈 문의가 많았다고,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전했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국적이탈에 필요한 서류(자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로 부모와 자녀의 한국 가족관계 서류 등)를 모두 갖춘 후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복수국적자가 분명하나 국내 출생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각종 서류 보안을 전제로 이

탈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서류를 보완해야한다. 따라서 선전적 복수국적자 남성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는 경우, 18세가 되는 해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녀 출생이후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부모 혼인신고, 자녀 출생신고 모두 마친 후 국적이탈 신고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부 또는 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18세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부 또는 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고 병역의무가 해소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문의: 박성숙 영사 (213)385-0664(내선 204)
(기사제공: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2017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기도회' 연다

5월 4일(목) 오후 7시30분 주님세운교회

2017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기도회가 자마(대표 강순영 목사)와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윤복 목사) 주관으로 오는 5월 4일(목) 오후 7시30분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11시30분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강순영 목사는 "작년 기도회에는 미국을 하나님께 되돌릴 수 있게 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운을 뗀 뒤 "미국은 기회를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 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 신앙의 자유보호, 미국을 기독교 가치관을 갖게 해서 무슬림으로부터 회복하는 것, 메이스스 등 백화점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메리크 리스마스 표현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라 말했다.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연합기도회 행사에 대해 강순영 목사가 설명하고 있다

강 목사는 "트럼프 자신은 신앙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나 각료들을 신앙 좋은 자들로 임명했으며 부통령 펜스는 역대 부통령 중 가장 신앙이 좋다. 또한 보사부 장관의 경우 반낙태 반대성이자이며 교육부장관은 공립학교에 창조론을 가르쳐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해 벅시 디보스를 임명했다"고 말하며 "이

번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은 미국과 외국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회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 언급했다.

(박준호 기자)



이성숙 작가 산문집 '고인물도 일렁인다' 북콘서트에서 이성숙 작가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성숙 작가 산문집 '고인물도...' 북콘서트

"세상에 조약돌 던질 수 있는 마음 전하길"

이성숙 작가 산문집 '고인물도 일렁인다' 출판기념 북콘서트가 6일 오후 6시 드림웨딩홀에서 열렸다.

이성숙 작가는 "고인물은 이기가 긴 돌 틈에서 잘라거리는 저의 마음"이라 언급하고 "오늘 이 자리가 한사람만의 자리가 아니었으면 한다. '고인물도 일렁인다'는 두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50이 넘는 아줌마가 간직하고 있는 꿈을 글로 표현했다. 마치 세상에 조약돌을 던질 수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이 전해졌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레미슨 씨의 사회로 진행된 콘서트 1부 순서는 고영준 목사(미주한국기독교문인협회)가 기도했으며 양준호 대표(크리스천헤럴드)가 축사를, 방동섭 목사(미주한국기독교문인협회)와 김화진 회장(재미수필문학가협회)이 격려사를 했다.

2부 디너&북콘서트는 이보영 칼럼니스트와 성민희 수필가 그리고

(박준호 기자)



더텐트가 '추억'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콘서트에서 OC첼로앙상블이 공연하고 있다

홍순관의 동요와 시노래 콘서트 '엄마나라 이야기' OC교협, OC한인회, K스테이지 공동주최로

한국의 서정 가수 홍순관씨가 오는 5월 6일 가든그로브 오피시어터 (12762 Main St. Garden Grove)에서 동요와 시노래 콘서트 '엄마나라 이야기'를 펼친다.

오렌지카운티(OC)지역 한인교단 K-Stage(단장 데이비드김)의 주최로 갖는 이번 콘서트는 30여년간 지구촌 평화를 주제로 세계 곳곳에서 1000회 이상 공연을 해온 서정 가수 홍순관 집사가 남가주 한인들을 위한 콘서트에 나선다.

홍 집사는 이번 공연에서 아름다운 가사와 메타포(은유)가 살아있는 창작동요와 시노래를 통해 한인 2세들에게 밝은 미래를 위한 상상력을 키워주고 엄마나라인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K-Stage 운영회 고문은 "잊혀지는 엄마나라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동요를 통해 들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가정의 달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포근한 공연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공연의 수익금은 노래로 한글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글교육에 나서고 있는 아프리카와 남미지역의 한국 어학교에 홍순관 집사의 동요CD를 보내는 기금으로 사용된다"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지난해 봄 '엄마나라 이야기' 앨범을 내고 세계 각지의 한글교육 시설에 동요CD를 보급하기 위해 5



월부터 3년간의 일정으로 동요 공연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는 홍 집사는 "동요는 상상력을 키워주는 씨앗과 같다. K팝과 막장 드라마에 휩쓸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의미가 내포된 동요를 통해 정체성을 다지고 한국에 대한 연대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싶다. 동요 CD를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1장의 음반과 4권의 저서를 발매한 홍순관 집사는 현재 기독교환경운동 홍보대사,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공연관련 문의는 이메일 (gabesoohn@yahoo.com)과 전화 (909-610-0889, 310-465-7318)로 하면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담임목사 청빙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염영민 목사)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지원자격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 가입되었거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KAPC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 신학교 졸업한 자로 담임목사, 선교사, 부목사 5년 이상 경험자 △이중언어 가능 △미국 내 목회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자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목회철학과 비전, 자기소개서(신앙고백, 목회경험, 가족소개, 사신), 졸업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최근 1년 내의 설교(동영상, CD), 목사 2명이상 추천서. 서류는 이메일과 우편으로만 접수하며 5월1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문의: oc1newpastor@gmail.com

제6회 가정선교세미나

미주가정선교회(대표 이재근 목사)는 제6회 가정선교세미나를 5월 6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가주성서교회(7037 Orangethrope Ave, Buena Park)에서 개최한다. 참가비는 50달러(4월 20일까지 신청시 30달러)이며 교재와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강사는 이재근 목사.

▲문의: (562)714-0691

조이기독교서점 30주년 기념 이벤트

조이기독교서점(621 S. Virgil Ave, Suite 410, LA)이 30주년 기념이벤트로 신앙서적을 50%할인 판매한다. 서점 영업시간은 월-금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 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다.

▲문의: 1-800-662-7282

소망소사이어티 제2회 소망포럼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4월 1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감사한인교회(담임 김명길 목사)에서 제2회 소망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치매에 대해 다루게 된다. △치매예방(다니엘장 신경정신과 전문의) △인지능력저하의 진행과정(이윤신 박사) △치매에 관한 잘못된 상식 바로잡기(페티 모튼 OC알츠하이머협회 부회장) △치매 환자 간병인들을 위한 조언(에린김 임상사회복지사)가 강의된다.

▲문의: (562)977-4580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 2017년 부활절 음악회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담임 조승홍 목사)는 2017년 부활절음악회를 30일(주) 오후 4시30분에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USC 합창단과 본 교회 합창단이 함께 출연한다.

▲문의: (310)800-7496김광진 장로

2017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퀴즈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가 주최하는 "2017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퀴즈대회"가 22일(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개최된다. 미주 각 고등학교, 한국학교 및 이중언어학교 등 고등학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시상내역은 최우수상(1명) 500달러, 우수상(2명) 각 300달러, 장려상(3명) 각 200달러.

▲문의: (213)384-6919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LA지회

미국과 한국 여성들의 네트워크 단체인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로스앤젤레스 지회(지회장 오은영)에서 주최하고 한국 여성가족부, 나성총영사관 등이 후원하는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 'Dare to Dream II: Shine and Fly'가 오는 22일(토) 오후 5시 허핑턴 센터(1324 Normandie Ave. LA)에서 열린다.

▲문의: (213)435-0402

한미가정상담소 분노 및 감정조절 세미나

한미가정상담소(소장 유동숙)는 14일부터 6주간 분노 및 감정조절세미나를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스탠튼 사무실(12362 Beach Blvd, #1)에서 개최한다. 참가비는 40달러.

▲문의: (714)892-991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3월 26일(토)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3월 26일(토)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천주)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213)388-701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월-금): 오전 5:30 EM: 오전 6:30 금요기도회: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주둔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2:30 EM 찬양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EM 찬양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0:30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통속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4:00 Tel: (213)559-7728 (전황 경호),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213)380-9377, 9079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천주)4부: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45 토요일예배: 오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찬양예배: 오전 9:15, 11:30 임어예배: 오후 1:30(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819)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대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L.A., CA 90006	얼빈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월-토) 새벽기도: 오전 6:00(토) 수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천주)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주일 학교: 오전 5:40(월-토)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성경학교: 365일 24시간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 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명사: 오후 7:20(토)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i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scic.org	좋은미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6:00(토) www.sccsamsungchurch.org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16800 Immervale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stv.com / e-mail: pastor@iacorn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주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천주) 청년예배: 오전 10:00 주일 학교: 오후 8:00 www.torrence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956-4400 Fax: (718)95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부활절 맞아 16일 전국 부활절 연합예배

나라와 민족, 통일, 지구촌복음화, 인류평화위해 기도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교회들이 16일 부활절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이웃을 초청해 '2017년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교인들은 부활절연합예배에서 나라와 민족, 한반도 통일, 지구촌복음화, 인류평화 등을 위해 기도한다.

또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과 선물을 전달하거나 식사를 대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포항기독교교회연합회(회장 임상진 목사)는 16일 오후 2시 포항동부교회에서 '2017년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국회의원, 경북지사, 포항시장, 교인, 장애인, 새터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상진 회장이 인도, 동부교회 경배와 찬양팀 찬양, 박승대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장(장로) 기도, 이성찬 목사(구룡포사랑의교회) 성경봉독, 박진석 목사 설교, 김대원 목사(전 회장) 축도 순으로 이어진다.

특별기도에서 목회자와 장로들은 '포항시 복음화를 위해', '대한민국 위정자들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사업장을 위하여' 각각 기도한다.

유원식 상임총무(포항엘림교회 목사)는 "장애인교 새터민 등 50여명을 초청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선물과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미기독교총연합회(회장 이진호)는 이날 오후 3시 구미상모교회에서 '예수! 다시 사셨네!'를 주제로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이진호 목사 인도, 구미상모교회 찬양팀 찬양, 최갑중 백석대학교 총장 설교, 특별기도, 축도 순으로 이어진다.

특별기도에서는 나라와 민족, 한반도와 세계평화, 한반도 통일, 구미시 발전, 구미 성시화 등을 위해 기도한다.

안동기독교총연합회(회장 박장덕)는 이날 오후 3시 안동서부교회에서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규철 목사(안동성결교회) 기도, 안동시장조합찬단 찬양, 박장덕 목사(안동도원교회) 설교, 특별기도, 김용수 목사(전 회장) 축도 순으로 이어진다.

박 목사는 '오늘, 부활을 살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다.

특별기도회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안동시 복음화를 위하여', '안동시 발전을 위하여' 기도한다.

경주기독교연합회(회장 김상정)는 이날 오후 3시 서라벌대학교 원석체육관에서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상정 목사 인도, 하원정 장로 기도, 백승환 목사(대광교회) 성경봉독, 경주시기독교음악협회 연합찬양대 찬양, 김형준 목사(서울동안교회) 설교, 서기봉 장로 헌금기도, 성악 앙상블 '라운' 헌금특송, 특별기도, 류성환 목사(충효중앙교회) 광고, 마흥락 목사(동방교회·서기) 구호제창, 이규호 목사(전 통합총회장) 축도 순으로 진행된다.

특별기도는 신영균 목사(제삼교회)가 '경주성시화운동과 교회부흥을 위하여', 최용운 장로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길우 장로가 '경주지역 각 기관과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원목 목사(경주감리교회)가 '다음세대의 양육과 부흥을 위하여'를 위해 각각 기도한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승희 목사)는 같은 날 오후 3시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야구경기장에서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을 주제로 '2017년 대구지역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린다.

장에서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을 주제로 '2017년 대구지역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린다.

설교는 장영일 목사(범어교회)가, 찬양은 연합찬양대가, 축도는 최영대 목사(전 회장)가 한다.

서울지역(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는 이날 '생명의 부활, 민족의 희망'을 주제로 이날 오후 4시 명성교회에서 드린다.

예배는 김선규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인도, 이영훈 목사(기하성 여의도 총회장) '절망에 처한 자와 동행하는 예수님' 제목 설교, 전명구 감독(기감 감독회장) 축도 순으로 이어진다.

이중승 목사(대신 총회장) 인도로 시작되는 특별기도는 최철용 목사(합신 총회장)가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권오륜 목사(기장 총회장)가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이승헌 목사(개혁 총회장)가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여성상 목사(기성 총회장)가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해' 각각 대표기도를 한다.

또 신조광 목사(그리스도의교회 협 총회장)와 최원남 목사(개혁총연합 총회장), 이영봉 목사(웨신 총회장) 등이 부활절 메시지를 선포한다.

부활절 당일 식전 환영인사는 준비위원장 김정수 목사 진행, 이성희 목사(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대표회장·예장통합 총회장) 대회사, 김삼환 목사(예장통합 전 총회장) 환영사 순으로 이어진다.

특별준비위는 부활절(16일)이 세월호 참사 3주기인 만큼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도 가진다. 부활절연합예배 헌금은 특별히 의미 있는 곳에 사용키로 했다.

척 무겁다"면서 "더 이상 반사회적 종교집단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이단 사역자들이 힘을 합해 이단 사이버를 퇴치하자"고 강조했다.

현대종교는 4월호에서 만민중앙교회 사방하는교회(구 큰민중앙교회) 등 탈북민을 미혹하는 이단들의 실체를 소개하고 있다. 잡지는 "정통과 이단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한 탈북민이 당장 먹고살기 위해 이단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서 "선교 전략적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예방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대종교는 4월 서울 중랑구 영안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송정미씨, 한용재 목사, 주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500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최측근이었던 김남희씨가 함께 촬영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천지일보' 고위직을 지낸 신천지 내부 관계자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 신천지 교회에 공문을 보내 한나라당 당원으로 가입 시킨 적은 있다"면서 "그러나 이만희 총회장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지금은 정치적 물밑 작업 같은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계, 철저히 감시해야

이단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신천지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접근해 표를 몰아주는 대신 조직보호와 신도들의 정·관계 진출을 약속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시를 늦추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신현욱 신천지대책전국연합 대표는 "선거 때마다 신천지 연루설이 흘러나오는 것은 신천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력과 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박빙의 선거전에서 한 표가 아쉬운 대선 후보들에게 신천지는 매력적인 조직일지 모르지만 이단사이비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기총, 한교연과 통합 만장일치 결의

실행위·임시총회 개최, 3인 공동대표회장 체제전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과의 통합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또 한기총 7·7개혁 정관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새 정관을 추진했다. 한기총과 한교연 통합을 위한 한기총 준비는 끝난 셈이다.

새 정관은 대의원 175명 중 148명이 찬성했다. 주요 내용은 1인 대표회장체제에서 3인 공동대표회장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3인 공동대표회장은 전·현직 총회장 중에 선임된 상임회장과 가운데 교단 규모를 감안해 가군(7000개 교회 초과 교단)에서 1명, 나군(7000개 교회 이하 1000개 교회 초과 교단)에서 1명, 다군(1000개 교회 이하 모든 교단)에서 1명을 선출키로 했다.

선 통합 후 이단문제 해결 가닥

한교연, 한기총과 통합 추진 12일 선언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의 통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단문제 등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한교연은 11일 서울 관악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총회 회관에서 합의한 대로 양 기구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회의 후 "한교연도 한국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 한기총과의 통합을 원한다"면서 "이영훈 대표회장과 지난 4일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양 기구의 통합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영훈 정서영 대표회장 등은 당시 모임에서 12일에 통합 선언을하기로 합의했다. 선언문에는 '한기총의 7·7 개혁정관을 새 정관의 기본 골격으로 한다' '기존 가입교단

상임회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과 통합, 대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기독교한국침례회 등에서 각 1명, 군소교단 대표 2명 등 총 9명이다. 통합을 전제로 현재 한기총 회원교단이 아닌 예장합동 등도 포함시켰다. 상임회장단과 공동회장단에서 12명으로 구성된 공동대표회장 추진위원회가 이들 공동대표회장 후보 3명을 추천하면 총회가 과반수 동의를 얻어 결정하게 된다.

대의원 자격은 회원교회 수가 기존 100개 이상이 아닌 200개 교회 이상인 교단에만 부여키로 했다. 다만 군소교단이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회원 교단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회원 교단은 그 이하라도 총회대의원 1인을 파송할

신학대 분규, 무엇이 문제인가

표류하는 한국 신학교들 갈등 여전

은 인정한다' '직원은 승계한다' 등 3가지를 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단문제에 대해서도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 한교연은 그동안 한기총 내 '류광수 다락방' 등 이단문제 해결 없이는 통합 논의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현재 다락방의 조직인 세계복음화전도협회는 한기총에서 탈퇴했지만 다락방이 소속된 교단은 그대로 머물러 있다. 양 기구의 통합 추진위원장은 최근 다락방 측에 한기총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회장은 "다락방 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통합 추진 선언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 "다락방을 이단으로 지목한 교단들이 한교연에 있는 만큼 이 대표회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신학대 분규, 무엇이 문제인가

표류하는 한국 신학교들 갈등 여전

종교개혁 500주년인 올해 한국교회의 신학교육 현장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총장 선출과 이사회 구성 등으로 갈등을 거듭해온 일부 신학교들이 해를 넘겨서도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행정의 공백은 물론, 신학교의 위상 추락과 함께 종교개혁 정신에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갈등 과정에서의 소송전은 "네

울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고, 교수들도 양분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총장 선출 파행으로 학교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이 마비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감신대는 2015년 학내 사태에 이어 총장 선거 문제가 지속되면서 학교 당국과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입생 미달 현상

수 있게 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안건을 다루기에 앞서 "정관 개정은 한기총·한교연 대통합을 위해 초석을 놓는 일"이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새 정관 추진에 이어 이 대표회장이 "앞서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새 정관 하에 한교연과 통합하고 (양쪽 기관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교단과 함께하는 것을 결의했다"며 한교연과의 통합을 안건으로 상정했고 대의원은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기총이 7·7정관을 기본 골격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한교연과의 통합을 결의함에 따라 공은 한교연으로 넘어갔다. 이 대표회장과 정서영 대표회장은 지난 4일 비공개모임을 갖고 7·7정관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정관 채택 등 통합 방식 및 절차에 합의하고 오는 12일 통합 선언을 하기로 했다. 정 대표회장은 11일 임원회를 열어 한기총과 통합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기총과 통합에 대해 한교연 내부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바뀐 상태다. 한교연은 이단문제 등을 들어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교연의 한 관계자는 "이전에는 '선 이단문제 해결, 후 통합'을 주장했지만 현재는 통합 후 해결하지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

12일에 통합 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던 것과 달리 통합 추진 선언을 하는 것으로 수정한 데 대해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정 대표회장은 "통합 선언은 대표회장과 선출하고 공동 정관도 만드는 등 통합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합 추진 선언이 맞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원회에는 한교연 임원 104명 중 30명이 참석했으며 34명은 위임장을 냈다. 회의에선 정관을 개정, 대표회장 아래 상임회장을 두기로 했고 대표회장이 바뀔 때마다 교체하던 법인 대표이사를 3년마다 교체키로 했다.

“탈북민 먹고살기 위해 이단교회 출석”

이단 전문잡지 '현대종교' 4월호, 교계대책 촉구

현대종교는 1971년 '성별'이라는 이름으로 창간됐으며, 그동안 구원과 파 대성교회 JMS 영성교 다미선교회 신천지예수증거장막성전 하 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종인회) 등 수많은 이단사이비 단체의 실체를 폭로했다. 특히 국민일보 등에 최대민의 실체를 파헤치는 1차 자료를 제공했다.

94년 2월 탁명환 소장이 피살된 후 장남 탁지일 부산신대대 교수가 이사장 겸 편집장을, 차남 탁지원 소장이 발행인을 맡아 이단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삼남인 탁지웅 성

공회 신부는 일본 등 해외소식을 정리해 게재하고 있다.

탁 교수는 "지난 46년간 이단과 관련된 사건을 있는 그대로 낚아채기 사화했던 것이 한국 신흥종교 및 이단운동 연구의 1차 사료로 자리 잡은 것 같다"면서 "장기적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단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탁 소장은 "500호 발간이 감사하긴 하지만 세월호 문제나 이단 사아비의 폐해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

신천지 정치권에 꾸준히 러브콜

유력 후보에 '줄'대지 못하게 감시해야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 연루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아직은 근거가 확실치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단사역자들은 신천지가 특정 후보 측과 뒷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교계의 철저한 감시를 당부했다.

신천지-대선후보 연루 의혹

신천지 관련 의혹이 먼저 불거져 나온 곳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다. 한 교계연론은 지난 7일 국민의당 원주지역 1300명의 당원 중 수백명이 신천지 신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부산시당에도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입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은 즉각 부대변인 논평을 내놓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비난하면 역풍이 불 뿐"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2012년 12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절 신천지 신문인 '천지일보'에 광고를 게재했던 게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됐다. 문 후보 측 대변인은 "선거 때 광고를 하면 통상적으로 국회에 등록된 온라인·오프라인 매체에 한다"면서 "소액 광고는 일괄적으로 당 총무국에서 집행했을 텐데, 신천지 연루설은 워낙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신천지는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8일 성명서를 내고 "이미 사

회의 일원인 신천지를 반사회적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신천지에 교인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기성교회 목사들과 그 이익을 대변하는 기독교 언론의 술수"라며 화살을 한국교회에 돌렸다.

정치권에 꾸준히 '러브콜'

신천지의 정치권 접근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0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의 이경재 기독교대책본부장은 신천지 행사에 참석해 축사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2006년 국회의원 시절 이만희(86) 교주와 한자리에 앉은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2009년엔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신천지 체전에 참석해 축사했다.

2012년 한나라당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변경할 때도 신천지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의원실 비서로 신천지 신도가 잠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12월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이만희 교주의

과 대학평가 하락 등이 이와 무관치 않다고 총동문화 측은 전했다.

한신대는 지난해 총장 선임 문제로 이사회와 학생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학교 안에 경찰까지 투입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최근 학교법인 한신학원은 "총장 선임은 정관에 따른 이사회 의결사항을 학교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학생은 정당성과 민주성을 상실한 일방적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결의사항에는 한신대 구성원이 결정한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7일까지 순위 없이 복수의 총장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는 총장을 선임할 때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학생 측은 "한국기독교총회회가 현재 이사회에게 사비를 권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회는 총장 선출에 대한 권위를 상실했다. 총장선출 방법도 모호하다"고 맞서고 있어 또 다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교단 총회와 신학교 간 갈등

총신대(총장 김영우 목사)는 재단이사회 구성을 놓고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 총회와 2년 넘게 대립각을 세워 오며 사상 초유의 임시이사(관선이사) 파송 절차를 밟고 있다. 2015년에 선임된 재단이사 4명의 취임은 교육부가 지난달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임시이사 파송 절차가 잠시 멈추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총신대 재단이사회 재직 이사는 교육부가 승인한 일반이사 4명과 지난 2월 열린 이사회에서 개방이사로 선임된 후 등록 절차를 밟은 김승동(구미상모교회) 목사를 포함해 5명이다. 이사회 의결정족수(8명)를 맞추기 위해선 3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소송전 학교내 경찰 진입…신앙 근본마저 훼손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은 망명되어 일컫지 말라"(출20:7)는 십계명의 제3계명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신앙의 근본을 가르쳐야 할 신학교가 신앙의 기본 원리마저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총장 선출 표류, 어디까지

1907년 협성신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해 신학교 중 국내 최고 역사를 가진 감리교신학대는 9개월째 총장을 뽑지 못하고 있다. 감신대는 지난해 5월 30일 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선정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후보 검증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옥신각신해왔고 총장 선출 방법을 두고도 이견이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법적 소송도 진행됐다. 지난해 가을부터는 이사회 내부가 두 편으로 갈라져 갈등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신총동문화회(회장 남윤희 목사)는 감신대 사태를 종재하기 위해 4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고 비대위 위원장에 신경하 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을 선임했다. 신전 감독회장은 "이사회는 내부의 심각한 갈등으로 학교 문제를 조

교육부가 제시한 조건은 조속한 개방이사 선임이었다. 이에 따라 재단이사회는 5일 전주예수병원에서 이사회를 열고 최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위원장 허활민 목사)가 후보로 추천한 6명 중 3명의 이사를 선임했다. 재단이사회 측은 "오늘 선임된 이사는 교육부 보고를 마친 뒤 총신대 홈페이지 상의 회의록 게재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단 관계자는 "당장 8명의 이사가 선임돼 해결의 물꼬를 튼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앞으로 일반이사 선임과정이 관련"이라고 밝혔다. 예장합동은 지난달 30일 열린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신대 문제 해결에 대한 협상 전권을 총신대책위원회(위원장 서현수 목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예장합동 제78대 총회장을 지낸 최기재 광주동명교회 원로목사는 "국내 신학교들은 교육부에 소속돼 있긴 하지만 각 교단의 신앙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협상 주체들이 욕심을 버리고 진실로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등의 골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교의 창 (76)

부활신앙과 선교



송중록 목사 (대학선교, Ph.D)

2017년도 부활절은 4월 16일이다. 이때가 되면 교회와 선교지마다 여러 행사로 북적거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활절 아침 연합예배이다. 여기저기서 잔치도 하며 채색된 계란을 나누어 주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금번 절기가 또 하나의 연례행사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 우리 그리스도들에게 과연 부활신앙이 있는가? 성도들의 가슴과 얼굴에 부활의 소망과 환희가 있는가?

솔직히 우리에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부활의 생명이 별로 없다. 대다수 그리스도들은 불행히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오고 있다. 교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내면적인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절기는 신앙적 구습과 매너리즘의 구각을 깨뜨리는 좋은 기회이다. 마른 뼈처럼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영적 패잔병들이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예수부활의 증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예수 부활의 역사성(歷史性)

예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다. 이것이 곧 기독교의 두 기둥이다. 그 중에서도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사건은 한낱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구속 자체가 무효화된다는 말이다. 오직 부활로 인하여 그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구속 주 되심이 공인되었다(롬1:3-4). 말하자면 부활은 “다 이루었다”(요 19:30)고 외친 성자 예수의 선언에 대한 성부의 화답인 셈이다. 그렇다면 예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부활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빈 무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고전15:5-8), 사도들의 극적 변화, 초대교회의 설립, 주일 제정 등 헤아릴 수 없다. 또한 예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다. 헬라어로 ‘증인’(μαρτυρ)이란 영어에서 ‘순교자’(martyr)라는 말이다. 순교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할 수 없어서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이다. 누가 거짓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겠는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오늘날까지 수천만 명의 순교자가

나왔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부활의 증인들이 순교하고 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도들

바울은 다대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행9:1-18). 이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뀐 생의 전환점이었다.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 H. Ridderbos는 “바울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속사의 중심사건이며 또한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 전체의 중심이다”라고 했다. 그렇다. 부활하신 주님의 현현은 그의 삶과 사역의 출발점이자 원동력이었다. 만일 바울에

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부활신앙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다. 선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 부활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미래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며 샘플이다. 고전15:23에 보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부른다. 무슨 뜻인가? 과수에 열매가 처음 열리면 다음에 계속 열릴 것을 암시한다. 하나의 사인(Sign)이요 보증이다. 우리는 언젠가 썩지 않고 죽지 않

둘째는 성결(聖潔)이다. 성도들은 거룩한 성령님이 내주하며 장차 부활할 몸이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가 전부이다. 그러나 성도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내세를 바라본다. 따라서 부활 신앙인은 늘 조심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된다.

셋째는 헌신(獻身)이다. 현명한 사람은 미래를 내다본다. 성도는 미래의 천국과 부활이 있기에 오늘 거룩한 투자를 한다. 부활의 주님은 선교 명령을 주셨다. 선교는 교회의 특권이고 축복이다.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사명을 위해 가든지 보내든지 순교자적 각오로 헌신하게 된다.

부활 생명은 십자가 아래서 죽은 자에게 주어진다.

부활 신앙인은 세상에 속하나 세상을 초월한 자이다.

부활 신앙은 자기 한계를 깨뜨리게 하며 선교를 선교되게 한다.

게서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바울이 되었을까?

이는 비단 바울 사도만이 아니다. 예수님의 택함 받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지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나 믿음, 헌신, 권세 등에서 형편없는 자들이었다. 자라다름이나 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다. 의심 많은 도마, 성질 급한 베드로 등 모든 제자들이 피장파장이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을 받은 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 절망에 빠졌던 이들이 영적 전사로 돌변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몸을 던졌으며 중국에는 대부분 순교했다.

부활 신앙을 소유한 선교사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개신교 최초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 항에 도착했다. 그들은 영적 촉망의 권세에 놓여있는 조선 민족을 바라보았다. 그때부터 이 민족에게 천국문이 열리고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다. 그들이 왜 마나면 이 땅에 왔는가? 왜 1년 365일 중 부활절 아침에 도착했는가? 그들은 부활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다. 만일 천국이 없고 예수 부활이 없으면 그들은 결코 오

고 강하고 아름답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때는 사망 끝, 질병 끝, 고난 끝이다. 완전한 치유이며 창조와 원형으로 회복이 된다. 또한 이 부활은 현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수 부활은 우리 신앙에 역동적인 에너지가 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마28:20)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 하겠다고 말씀 하셨다(요14:18). 성령은 예수의 영이요 부활의 영이다. 육체를 입은 주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으나 이제 영으로서 무소부재하며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부활신앙의 실제

부활신앙을 소유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째는 승리(勝利)이다. 인류에게 최대의 적은 죽음이다. 죽음은 인간을 절망하게 한다. 죽음은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다. 아니 작은 문제만 생겨도 버거워한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예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요, 죄에 대한 거룩의 승리요, 불의에 대한 진리의 승리요, 마음에 대한 사랑의 승리이다.

맺음 말

부활 신앙인은 어떤 자들인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들이다. 세상에 속했으나 세상을 초월한 자들이다. 영화로운 하늘나라를 내다보는 자들이다. 자기 힘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세상의 죄악을 통회하며 역사적 가운데 사는 자들이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시온 산처럼 요동치 않는 자들이다. 주의 영화로운 얼굴을 구하며 이 땅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소원하는 자들이다. 자기 김덩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죽음까지 초월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초대교회 카타콤의 성도들이 그러했다. 일제 치하의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던 우리 선진들이 그러했다. 오늘 목회와 선교가 어려우려야 한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참 생명을 회복해야 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요11:25-26).
jrsong007@hanmail.net



아르헨티나

살름... 아르헨티나 리오네그로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17년 한해가 시작하기도 벌써 3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분주한 만큼 사역의 진척도 많이 있길 소망해보지만 그렇지 못해 가끔 인내가 더욱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일기에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갑니다.

이곳은 12월에서 2월까지가 긴 바캉스 시즌이라서 관공서나 모든 일들이 더디 걸립니다. 특히나 금년에는 교사노조에서 파업까지 있어 아직 저희 건우, 민우도 중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새해가 시작하면 1년 스케줄이 잡히는데 이곳은 스케줄이 잘 없습니다. 정책과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저희도 금년의 스케줄을 계획했는데 특히나 학교와의 스케줄 조율이 어렵습니다.

금년 초에 그리스도 선생님들과 함께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무료로 보충수업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나체 제도가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나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곳 시골에서는 제대로 공부를 못해 졸업하지 못한 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기회로 많은 학생들이 나체한 과목들을 공부해서 이수했습니다. 그중에 한 학생은 학업 외에 심리치료의 도움 또한 받게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학생들의 학업 뿐 아니라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7 여름 캠프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장화 프로젝트(Huella de Cristo)로 110번 학교 아이들을 초대하여 지역의 4교회가 함께 섬겼습니다. 여러 교회의 연합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참여한 아이들의 변화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많은 도전과 은혜가 있었습니

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기도와 후원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매년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캠프가 되고 복음의 말씀이 멀리 퍼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월말부터는 학교가 모두 정상으로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5월에는 장화 프로젝트로 학교들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옆 마을 Belisle에서는 지역교회가 다음캠프 개최를 희망하여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캠프를 통해 복음을 들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교회들을 연결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그곳으로 아이들을 인도해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려고 합니다.

보충수업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업의 도움뿐 아니라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상담부스를 교회와 함께 운영하도록 계획 중입니다. 이미 캠프를 치른 한 학교에서 도움부스를 신청했습니

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로 인해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계획하고 발로 뛰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인 '사랑'이 없이는 모든 관계가 무의미하게 여겨질 뿐이려니 믿는 매 순간 느낍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주세요!

1. 저희가족(김우진, 박경희, 건우, 민우)과 CIVIS STAFF 모두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2. 장화 프로젝트(Huella de Cristo)와 캠프사역을 통해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3. 그리스도 선생님들과 교회의 연합을 통해 학생들을 학업과 영적인 면으로 바르게 세워줄 수 있도록.
4. 지역 교회들에 주일학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5. CIVIS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
Fundacion_Civis (civisargentina@gmail.com)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오후예배: 오후 7: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 오전 6:00(토) Tel: (206)579-7576, Fax: (206)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http://www.bethelchurch.org/	벨앨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 주일, 종교동무: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토요일예배: 새벽 8:0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 주일, 종교동무: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시애틀평장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오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psattle.org	안다루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jehs.com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역: (501)9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hs.com	앵커리지벨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	엘파소열리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7:30 Tel: (515)422-0288, Fax: (515)422-9037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일기도회: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킬린노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찬양회: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회: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letranz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 찬양회: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scnmc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동남아 선교 스케치



임지석 목사 (나성세계교회)

3월 한 달은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 일정으로 동남아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도는 거리에 비행기만 아홉 번을 갈아타면서 일본, 필리핀, 인도를 다녀오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3개국에서 해야 할 사역들이 현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보니 이를 준비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았음을 생각 해볼 수 있다. 특별히 가는 곳마다 날씨가 다르고 시차가 제각각인 관계로 현지에서 적응을 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교우 및 여러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도 힘입어서 사역을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음은 무엇보다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1. 일본에서의 여정

이번에 동경을 중심한 지역에서 한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가질 수 있었다. 대부분 일본 선교 10여년의 연륜을 가진 분들이었는데 일부는 사역에 보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선교의 현실이나 전략적인 측면을 떠나 사역 대상인 일본인들을 효율적으로 알아가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무거운 주제 대신에 선교사 자신들로 하여금 지난날의 사역을 점검하고 잠시나마 휴식을 가져보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자 했던 것이다. 특별히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사역은 영성회복과 치유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일본은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수수께끼 같은 나라라고 한다. 한국인들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도 있지만 한인 선교사들의 사역 환경이 녹녹치 않다는 것을 많은 곳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 좀처럼 속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그들을 상대하면서 문화적인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말이다. 특별히 세미나를 마치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한 선교사님이 했던 코멘트는 충격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번은 일본에서 대학교부터 다니면서 30년 가까이 일본을 경험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들은 표리부동하다 하면서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보여주는 행동이 전혀 다르다고 말한다. 자신이 일본인 동료 목회자들에게 당한 따돌림(이じめ)으로 인해서 가슴이 새까맣게 타 들어갔던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선교가 더욱 의미 있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을 만큼 정서가 너무 다르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날 이러한 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신도 사상'으로 무장한 정신세계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뿌리 깊은 민족적 적대감이 있지만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분명히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힘들고 어려운 사역의 현장에서 오늘도 땀과 눈물로 헌신을 다하고 있을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빌어본다.

2. 필리핀에서의 여정

서울에서 주일을 보내고 다음날인 월요일 오전 8시 인천공항에서 마닐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 필리핀은 3월인데도 한국날씨로 따지면 한여름이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일행과 함께 네 시간 넘게 차를 타고 목적인 Subic이라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 도시는 예전에 다녀보았던 필리핀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발전된 곳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는데 미 해군 기지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사역지인 International Reformed



인도 트리반드룸에 있는 Grace Counseling Center 앞에서 선교 Conference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에서 여정을 시작했는데 강의실과 숙소 등이 부족함 없도록 잘 갖추어져 있었다.

화요일에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Intensive Class(집중강의)를 진행했는데 50여명의 학생들이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필리핀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통역 없이 강의를 할 수 있어서 강의를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매달 한 번씩 진행되는 강의에 차를 타고 네다섯 시간씩 걸리는 곳에서도 찾아오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 기숙사나 강의실에서 만나는 학생들마다 배움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러한 이유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적지 않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여건이 허락만 된다면 자주 와서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 채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음 목적인 인도로 찾았다.

3. 인도에서의 여정

인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찾아오는 나라인데 인도의 남서쪽 끝에 위치한 Kerala State의 Trivandrum이라는 곳이 목적인지이다. 이곳에서 Counseling Center를 운영하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보안상 이름을 밝히지 않음)의 초청으로 목회자 및 교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Conference를 가질 수 있었다. 도착하는 날부터 인도의 열악한 경제 사정을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었는데 첫날 묵었던 호텔에서의 경험은 가히 충격적인 것이었다. 외국인인 인도를 방문하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보통 며칠은 호텔에 머물러야 한다기에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손님이 없어서 직원을 쓸 수가 없고 직원이 없는 관계로 한동안 청소도 하지 못했는지 도저히 침대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날씨가 더워서 40도를 훨씬 웃도는데 습도까지 엄청난 바람에 그야말로 찜통더위를 경험해야 했다.

호텔에서 하루를 보낸 후 호텔에서 양해를 구하고 Counseling Center로 숙소를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인근 거리에서 찾아온 목회자 및 사역자가 100명 가까이 참석하는 참으로 성령이 인도하신 행사였다. 현지인 사역자의 말을 빌리면 외국에서 강사가 와서 Conference를 인도하는 일은 카운슬링 센터가 생긴 후 처음 있는 일로서 참가자 중 일부는 센터의 고객들이고 나머지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다 한다. 주체 측이 이번 행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와 열정으로 준비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별히 본인의 식사를 위해서 매 끼마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준 현지인 선교사 가정의 섬김은 두고두고 기억될 일이다.

말치 않은 곳에 Church of St. Thomas가 있는데 잘 아는 대로 도마는 예수님의 열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특별히 이곳은 이슬람과 힌두교도 사이에 분쟁과 테러가 심한 곳으로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그리 안전하지 못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마지막 날을 위해서 인도 땅에 남겨두신 그루터기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열악한 경제 환경, 불안한 치안 상태, 인륜을 저버린 성범죄 등이 이들의 삶을 더욱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복음의 봄은 오고 있는데 필자의 자작시를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트리반드룸'에서 만난 꽃

꽃은 꽃이로되 이름조차 알 수 없구나 나그네를 대하기가 애석했는지 살포시 앞으로 가리고 돌아왔는데 인고의 세월이 그다지도 무거웠을까 고개를 들기조차 힘이 드는구나

꽃은 꽃이로되 분래 네 모습이 아니구나 사람들의 관심을 잊고 살았는지 저만큼 멀리 자리하고 있네 삶의 아픔을 견디기가 버거웠을까 빛바랜 몸으로 한 날을 이어가는구나

트리반드룸의 꽃이여 이제는 활짝 피어나라 네 이름 가지고 네 모습 그대로 부족함 없이 넉넉히 피어나라

어둠에 찌들었던 기억이 견고하고 이 땅 구석구석에 생기가 돌거든 너만의 화려한 봄을 맞이하라 만민에게 사랑받는 꽃으로 태어나라

*인도의 남서부 Kerala 주에 위치한 도시로서 복음의 꽃이 다시 피어날 그날을 기리며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몹시 더운 건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희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이화여대 발레 앙상블 팀의 전도집회 공연:

지난주는 장은혜 선교사의 이화여대 동창선교부와 이화여대 발레 앙상블팀 15명이 에티오피아를 방문해서 아디스아바바의 대형교회와 씨티 홀에서 전도 집회 공연을 2월 4일-5일 동안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2일 동안 4회의 공연을 통해 수 천명의 젊은이들이 참석하여 많은 결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 EGST 신학대학원 교수사역:

장은혜 선교사는 지난주부터 신학대학원 2학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학기는 3과목 수업을 가르칩니다(교회와 선교/현대사회와 종교개종). 각 과목마다 20여명의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낮 수업엔 각 부족에서 온 교회 사역자들이고, 저녁 수업에는 직장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칩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학생들 중에 판사인 학생, 그리고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석사 과정 수업 강의, 대학원생 논문 지도, 학생들의 영성개발을 위한 멘토링까지 맡게 되어서 지혜와 성령충만함으로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새학기에 모든 학생들이 학업과 사역, 직장생활을 잘 감당하고, 한 학기를 순탄하게 마무리하도록, 학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선교센터와 목회자훈련센터 건축을 위해:

에티오피아에 선교센터 겸 목회자 훈련원 건립을 위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비용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르가 짜페지역 전도집회:

커피로 유명한 예르가 짜페지역에서 복음 전도집회가 3월에 열렸습니다. 박종국 선교사가 주강사로 수만명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이 헌신하여 미전도지역에 사역자들을 보낼 수 있도록 집회를 인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에티오피아 대학생 5명 한동대학 초청 방문:

한동대학교 총장 초청으로 에티오피아 기독교 대학생 5명이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크리스천 리더십 연수를 위해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하는 대학생들은 에티오피아 국회의장님이 차세대 리더 발굴 양성을 위해 추천한 학생들로, 아다마 시장님의 자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6. 에티오피아 중학교 1학년 학생 사무엘의 한국 유학:

기독교 사립학교인 인천 송산 중학교에서 사무엘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에티오피아에서 저희와 사역을 함께하는 협력 선교사인 타더서 전도사의 8자녀 중 네 번째 아들입니다. 타더서 전도사는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미전도 지역에 전도와 교회개척을 감당해왔습니다.

사무엘은 학교에서 우등생으로 학업과 신앙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라서 슈바이처처럼 의사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부족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지만 월 100,000원 정도의 한국 생활비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먼저 중학교 1학년 입학의 시작으로 중학교과정 3년의 유학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후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고등학교와 대학과정까지



지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박종국 장은혜 선교사 드림
cushpark@gmail.com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2017 상반기 세미나 일정

날짜	지역	장소	이름	전화번호
2/6-7	LA	오렌지카운티	김영대 목사	714-392-9576
2/9-10	LA	오렌지카운티	윤건상 목사	949-705-7879
4/20-21	충북	평화교회	신형수 목사	010-4004-7004
4/24-25	강원도	영월교회	남상욱 목사	010-3422-5556
4/27-28	전남	전남지역	유동희 목사	010-9770-0110
5/1-2	창원	큰빛교회	강석규 목사	010-8706-9183
5/9-10	부산	부영교회	정종문 목사	010-3001-9257
5/11-12	부산	주님의교회	김종문 목사	010-3074-7974
5/15-16	충북	충주교회	윤민식 목사	043-272-2721
5-18	서울	등대교회	박래면 목사	010-9090-8291
5/22-23	대구	햇살선교교회	장명석 목사	010-8372-5063
5/25-26	대구	새생명교회	김하림 목사	010-8938-8512
5/30-31	양산	영광교회	김종명 목사	010-3022-0690



강사: 라흥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31)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 (15) (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사카이대학교신학대학원 교수)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 중에서 “물질 만능주의(Mammonism)”와 “부정부패(Corruption)”, “인종차별(Racism/Racial Discrimination)”, “문화간 차별(Cultural discrimination)”, 그리고 “남녀차별 혹은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Sexism)”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지난 이야기부터는 “동성애자 차별(Discrimination by sexual orientation)”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역적 자세를 함께 점검해 보기 위해서 동성애자들, 즉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집중해보자 합니다.

한인 기독교교육이 마주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현실은 한국 사회보다 훨씬 더 많이 동성애자들과의 관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한

그들을 향한 사역적 자세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동성애자들에 대해 가장 비판하게 회자되는 오해와 편견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첫째는, 동성애자와 동성애 행위자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동성애자를 정의할 때, 동성애 행위를 실행하는냐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오로지 성적지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적지향이 이성애인 사람도 동성애 행위를 할 수 있고, 성적지향이 동성애인 사람도 동성애 행위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와 동성애 행위를 실행하는 자를 혼동해서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물론 동성애자들이 타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그 대상은 대부분 동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합니다). 동성애자 중에서도 마치 카톨릭 성직자가 순결을 지키듯이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신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는 자들이 그렇듯 힘있는 사회적 행동이 가능하다면, 과연 그들이 정말 정신질환자들로 분류되는 것이 정당하지도 몰아야 하겠지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동성애자는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된다는, 즉 후천적 선택에 의해 동성애자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동성애 이슈와 관련하여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인가, 후천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오랜 기간 논쟁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동성애자가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라면, 그 성적지향을 가지고 동성애자를 도덕을 무너뜨리는 원흉으로 비난하고 그를 죄인으로 낙인찍기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동성애 행위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천적으로 주어진 특질로서의 동성애적 성적지향에 대해서는 그렇다 아니다 명확한 언급이 없고,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동성애자들에 대한 3가지 오해와 편견: 1)동성애자와 동성애 행위자를 동일시
2)동성애자는 정신질환자
3)후천적 선택에 의해 동성애자가 된다

인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며, 어떠한 심적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정립시켜주는 교육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선은 현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인 기독교 교육의 역동적 주제로 삼기는 많은 한인 어른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동성애자들을 향한 차별적, 멸시적, 혐오적 태도를 우리 다음세대들도 동일하게 갖도록 내버려 두는 일은 옳지 못한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지난번 이야기 말미에 지적했듯이 동성애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적 호 불호의 차원을 넘어서, 성적지향성을 이유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교육은 오히려 그들의 인권과 인격과 권리를 옹호하여야 하고, 동성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형제자매 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마땅히 우리의 형제자매로 자리매김 되어야 하는 동성애자들, 그들에 대해 조금만 더 정확한 이해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동성애 이슈에 대해 비평 사회학적 관여를 해야 하는 우리의

둘째는, 동성애자가 정신질환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동성애자를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동성애자를 치료할 필요가 있는 정신질환자로 합리화해온 것일 뿐, 동성애자는 정신질환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동성애자를 정신이상자로 치부하면, 동성애자에 대한 가치 판단 및 행동 준거를 세우기가 매우 편하기 때문이라고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동성애자가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이라거나, 혹은 어떠한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근거들을 찾고자 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동성애자가 정신질환자라는 근거를 합법적인 실증적, 과학적,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실 동성애는 이미 1973년에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식으로 발간한다는 일종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미 45년 전에 사람들이 가진 동성애자에 대한 이와 같은 오해와 편견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동성애자들이 조직적인 사회적 운동을 펼쳐서 미국 정신의학계의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는 미국 정신의학계의 정신질환자들의 단체행동에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하는 것 밖에는 안 되는 주장입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성적 지향과 그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적지향과 그 정체성은 인간 의식의 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정신의학자들과 성심리학자들의 주된 입장입니다. 만약 선천적 혹은 후천적이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적어도 후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오히려 선천적이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후천적으로 이러한 성적지향 혹은 취향 혹은 정체성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동성애자들은 어떤 후천적인 영향들, 예를 들어, 극한 쾌락을 위해 의도적으로 동성간 성관계를 추구하며 그리 선택받지 않는 것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오히려 이성애자들 중에서 더욱 극한 성적 쾌락을 위해 주로 남성 동성애자들이 하는 항문성교와 같은 동성애 행위를 동성 혹은 심지어 이성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위에서 살펴 본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 기독교 교육이 비평 사회학적 관여를 위해 견지해야 할, 동성애자들을 향한 합당한 사역적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삼하12:1-6[1])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총성된 우리 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일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이 한 범죄를 지적하시고 추궁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유를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어떤 부자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양떼와 소떼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잡지 아니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전 재산

으로 아끼고 돌보는 양 한 마리를 강제로 빼앗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사배나 값아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죄를 덮고 죄를 억지로 감춘 다윗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화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삼하12:1-6[2])

나단의 비유와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죄에 놀려서 사망으로 이르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여전히 죄와 절망의 자리에서 영원히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감사한지요!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죄를 추궁하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 당신이 그 사람이라(삼하12:5-13)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전 재산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니 다윗이 크게 노해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은 지금 완전범죄를 저지른 줄 알았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

남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나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듣는 다윗의 회개를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회개할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잘났느냐, 못났느냐로 보지 않으시고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주님께 돌아와 회개의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목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삼하12:13-14)

다윗이 드디어 옛날의 첫사랑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신앙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었습니까? 그것은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악에 묶여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51편에서 보면 다윗은 범죄한 후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길으로는 멀쩡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

진 고통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죄악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다윗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귀하게 보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51편에서 보면 다윗은 범죄한 후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길으로는 멀쩡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

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삼하12:15-17)

다윗은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놀랍게 소생됩니다(사57:17).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회개한 후에 무엇이 회복됐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기도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기도가 막혔던 다윗이 드디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미 범죄한 가운데 난 아들이 정병 죽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끝까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토 여호와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삼하12:18-23)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즉시 기도를 풀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순복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순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 어떠한 결

정이 났던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즉시 순복하고 가슴이파하거나 상처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들이 죽은 것은 참으로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죽었으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권한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대로 순복한 것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www.kuml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Tel: 39-06-827-3585, 39-348-339-1726</p>	<p>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Tel: (82)2-2646-3191~3, (82)2-2646-3184</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www.seongsil.or.kr Tel: (82)2-990-9998, Fax: 3927-1008</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p>	<p>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p>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p>	<p>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Tel: (02)418-0481, Fax: (02)422-0751</p>	<p>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p>	<p>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서울시 용인구 용인시 303-501</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Tel: (82)2-889-4813, 331-284-7204</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Tel: (02)942-8881, Fax: (02)942-888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Tel: (02)32-527-1009</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Tel: (82)2-793-7740</p>

“비선실세” 이방카 백악관 입성

폴리티코,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 백악관보좌관 임명 이유 “믿을 사람이 없어서”

이방카 트럼프가 백악관 막후 실세의 면모를 곧 세상에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는 백악관 웨스트윙에 자신의 집무실을 열고, 정식 백악관 직원과 마찬가지로 보안 검사를 거친 직원으로 등록하고, 정부가 인증한 관용 전화를 쓰게 된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Ivanka Trump set to get West Wing office as role expands: The first daughter will not, however, become a government

employee, raising ethics questions). 그러나 이방카는 공직을 맡지는 않을 것이며 급여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측에 따르면 이방카의 업무는 “비공식적”인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비공식적이라는 설명만 빼고는 사실상 공식적인 임무를 맡았다. 바로 트럼프의 “눈과 귀”다.

전형적인 정실 인사이자 친인척 특혜로 기록에 남을 일이다. 이방카 트럼프의 이력 어디에서도 백악관에서 무언가 일을 맡을 만한 자질과 능력은 찾을 수 없다. 전통적인 의미에 따라 대통령에게 조언을 건넨 만한 자질과 능력으로 한정해 보더라도 여전히 이방카는 자격이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방카에게 다른 누구도 갖추지 못한 두 가지 훌륭한 덕목이 있다며 딸을 옹호했다. 첫째는 그녀가 트럼프 가족의 일원이라는 점, 그리고 둘째로 이방카는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리라는 점이었다.

올해 35살인 이방카 트럼프는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자신의 이름을 딴 소규모 패션업체 사장으로 가장 유명하다. 아버지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TV 예능 프로그램인 “견습생(The Apprentice)”에 출연했고, 회고록이자 취업지침서인 “트럼프 카드(The Trump Card)”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이방카는 트럼프 그룹(Trump Organization) 경영에서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방카는 그룹의 세계시장 전략을 총괄했고, 수도 워싱턴DC에 있는 옛 우체국 건물을 호텔로 개조해 문을 여는 일도 진두지휘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경력은 백악관에 들어가 하게 될 일과는 전혀 상관없다. 이방카는 이제 국가 안보에 관한 기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폴리티코는 이방카가 관여하게 될 정책이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말하고 다니던 대통령 가족에 관한 일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방카 트럼프의 변호사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이방카가 백악관 안에서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첫 두 달 동안 잇단 내분과 누설로 혼란을 치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 몸소 익힌 진리처럼 ‘믿을 건 내 자식밖에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굳힌 게 틀림없어 보인다.

이방카 트럼프에게 백악관 안에 집무실을 내주는 건 명백한 친족 등용이고 족벌주의다. 하지만 법무부는 백악관 고문을 임명하는 데는 미국의 친족등용금지법(anti-nepotism laws)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방카가 백악관에서 일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다.

의회는 1960년대에 친족등용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전에도 대통령의 가족, 친척이 공직을 맡는 게 문제가 된 적

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대통령의 딸이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에는 대통령의 형제나 아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를 법무장관에 임명하고, 매제인 사전 슈라이버를 평화봉사단 총재에 앉혔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은 백악관에서 비서로 일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들 제임스도 오늘날 수석 보좌관(chief of staff)이 하는 중요한 조율을 담당하는 대통령 비서로 일했다

한편 백악관에서 일하게 된 이방카 트럼프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내에 온건한 성향의 참모진을 들이려는 것

경쟁 부처에 있는 사람들을 헐뜯고 깎아 내리는 이야기를 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규율이 전혀 잡히지 않은 상황의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정보 누설 방지 차원에서 열기로 한 회의의 안건이 사전에 언론에 전달돼 정보 누설을 근절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회의를 마친 직후 회의에서 오간 모든 내용이 그대로 보도되기도 했다.

트럼프는 최고의 인재를 기껏해야 별난 사람 정도로 여긴다. 그리고 사업 경력 내내 그랬듯 정치에 뛰어들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항상 과도하게 자신의 가족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 중 성인인 에릭과 도널드 주니어, 그리고 이방카는



으로 해석해서 안 된다. 진실은 간단하다. “최고의 인재”만을 뽑았다면 주장하는 정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피를 나눴거나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된 “트럼프 패밀리”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안에 이방카를 들여 자신의 “눈과 귀” 역할을 맡게 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배경은 어렵잖게 짐작할 수 있다. 보통 새로 취임하는 행정부는 초반에는 공통의 목표 아래 똘똘 뭉쳐있다. 정권 차원에서 큰 시련을 겪기 전까지는 행정부 내의 갈등과 잡음이 새나거나 서로 뒤에서 헐뜯는 일이 좀처럼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한 지 일주일 만에 그런 위기에 봉착했다.

현재 백악관과 정부 부처, 산하 기관에는 평균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평균보다 많은 수의 파벌로 갈라져 있다.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는 기자, 소개받은 기자에게 경쟁 파벌에 속한 사람이나

3-40년 인생을 사는 동안 아버지 회사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말고는 다른 사회 경험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 자신이 매일 돌보던 회사 경영을 두 아들에게 맡겼다.

다른 대통령이었다면,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심복을 백악관에 들이려 할 때 오랜 시간 함께한 훌륭한 동료나 아주 친한 친구를 선택했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수석 고문으로 발레리 재닛을 택했던 것처럼 말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족 이외에 그렇게 가깝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이 철석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을 때 대통령에게 딸을 부르는 것 말고는 별 대안이 없었다. 결국, 이방카 트럼프는 책임질 일의 없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를 꿰찼다.

특/별/기고



최낙일 목사

(복음문서선교회 회장, 동부장로교회 협동)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이것이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궁극적 구원이다

‘신의 구원.. 취소될 수 있다’, 2017년 2월 25일 미주 중앙일보에 게재된 글을 읽고 말씀하고자 한다. 본문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主權)적인 역사이므로 취소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이다. 구원 받은 자가 죄를 범할 수 있다. 하지만 죄를 범했다 해서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다만 구원받은 자가 죄를 범하여 선과 의에서 벗어나 탐자 같은 생활을 한다면 그는 천국 가서 상급이 없을 뿐이다(고전3:13-15). 땅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히12:5-13).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구원 받은 자가 믿음으로 살고 선과 의를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다(딤후 4:7-8, 고전3:15).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 ‘기본구원(基本救援)’과 ‘행위구원(行爲救援)’이다. 성경에 기본구원과 행위구원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구원의 기본구원은 에베소서 2장 8-9절, 갈라디아서 2장 16-21절이다.

‘행위구원’은 우리가 믿은 후에 성경을 순종하여 죄를 벗어 버리고 믿음생활을 힘써하여 죄를 끊고 선을 행하고 새사람이 된 것이다 이것을 행위구원이라고 한다(신학적으로는 성화聖化라고 한다). 행위구원에 대하여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기본구원 받은 자가 믿은 후에 감사하여 죄의 생활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 행위구원을 많이 이루어 나가면 후에 상을 받는다(딤후4:7-8).

만일 믿은 후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신자와 같이 행동(주초를 하거나 침을 얻거나 혹은...)하면 땅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곧 몸에 병이 들거나 물질의 손해를 보거나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으므로(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렘25:6-11, 느13:15-18) 선지자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백성은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다.

또한 목회자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설교하면 영력이 없는 설교를 하게 된다. 또한 진리를 깨닫지도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다.

목회자는 자기를 때려잡고 그리스도 예수의 행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고 박윤선 목사님은 목회자들에게 말하기를 “자기를 때려잡으라. 그리하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고자 하면 필자의 저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다”(부록: 칼빈주의 5대 교리)에 있다.

다시 말하지만 기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곧 창세전에 택하시고 믿게 하시고(내가 믿지 않으려 해도 믿음을 주심). 그러나 행위구원, 성화(聖化)는 믿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죄를 벗어 버리는 행위이다. 우리가 받은 기본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므로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믿음을 돌보아 주신다.

결론은 우리의 구원은 자음이 아니고 타율이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곧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믿게 하셨다(엡1:4:5)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뿐 성령으로 회개시키고 온전케 하신다. 고로 구원받은 우리는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

이 진리를 깨닫고 믿는 자는 더욱 믿음이 자라나며 항상 감사하면서 더욱 믿는 일에 힘쓴다. 오히려 고난 받기를 좋아한다. 이것이 순교자들의 신앙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하신 하나님의 주권(主權)이므로 이 진리를 깨닫고 믿으면 성경 해석도 잘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 또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성도의 견인의 은혜(궁극적窮極的 구원救援, Perseverance of the saints)가 있다. 이 교리는 ‘한번 구원받은 자는 다시 타락하여 멸망하는 일이 없다’함이다. 일시적으로 죄에 빠져 불신자와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필경 다시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때 놓은 당상이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해외총회 제39회 정기총회 소집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Overseas(Hap-Dong)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각 노회와 본 총회 총대원 여러분 배후에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총회 소집을 공고하오니 성 총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 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요 3:5)
- 일 시: 주후 2017년 5월 22일(월) 오후 4시 - 24일(수) 12:00 까지
- 장 소: 주 예수 사랑 교회(강유남 목사 시무) 1155 Hendricks Cswy Ridgefield NJ 07657 (551)655-4224, (201)705-8496
- 숙 소: 총회장소 인접 힐튼호텔 (Hilton Hotel)

- 참 고: (1) 각 노회 총대는 총회전까지 명단과 헌의 건을 보내주시심 바랍니다. (2) 회비 \$100, 부부동반 \$150 (3) 숙식은 총회에서 부담하며 숙소는 도착 순으로 배정함
- 유의사항: 기착공항은 New Jersey주, New Wark Airport 로 하시고 도착시간을 알려주시면 안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연 락 처: Tel.(551)655-4224, Tel(718)757-2379

주후 2017년 4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The General Assembly of Overseas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총회장 강 유 남 목사 서 기 흥 성 표 목사